

強大國의 對韓政策展望과 우리의 對策

1972. 4.





序 言

本 資料集에 収録된 各 編의 論文은 国土統一院 政策企劃室에서 지난 2年동안 계속 發展시키고 있는 平和統一大系의 內容을 補完 하기 위해 作成된 것이다.

세 論文中에서 情勢를 다른 二 論文은 韓國통일에 영향을 미칠 가장 重要한 變수의 하나인 強大國의 한반도 政策을 各己 相異한 視覺에서 組織的으로 分析하고 있으며 內容 記述面에서 客觀性을 維持하고 있다. 이와 併行하여 本集에 収録된 다른 一 編의 論文은 韓國의 將來에 대한 70年代의 挑戰要素를 整理하고 이같은 挑戰에 對処할 意圖的 代案을 提示하고 있다.

国土統一院은 國內의 有能한 學者들이 作成한 이같은 政策論文을 統一政策立案에 크게 活用하고 있다. 特히 本集에 収録된 論文은 다른 어느 論文보다 우리에게 敎示해 준바 크기 때문에 이 作業을 위해 手苦해주신 高麗大學校 金璣元 博士, 서울大學校 文理科 大學의 盧在鳳 博士,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정인택 博士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本 資料集의 出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明白히 해두고 싶은 것은 国土統一院이 이러한 論文을 公刊한다고 해서 이 資料가 곧 當院의 意思를 代弁하고 있지 않다는 点이다. 出版된 論文의 內容은 어디까지나 執筆者 自身의 意見이며 當院은 다만 이러한 論文에서 政策構想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것이다.

国土統一院의 資料集이 統一問題研究에 關心을 갖는 學者 및 政
府機關을 위해 多少라도 貢獻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

目 次

1. 70年代 美国의 對韓政策 展望과 韓國의 對策 ————— 1
2. 70年代 列強의 對韓政策展望과 安保統一 外交의 方案 ———— 35
3. 70年代 韓國의 對內的 統一与件造成方案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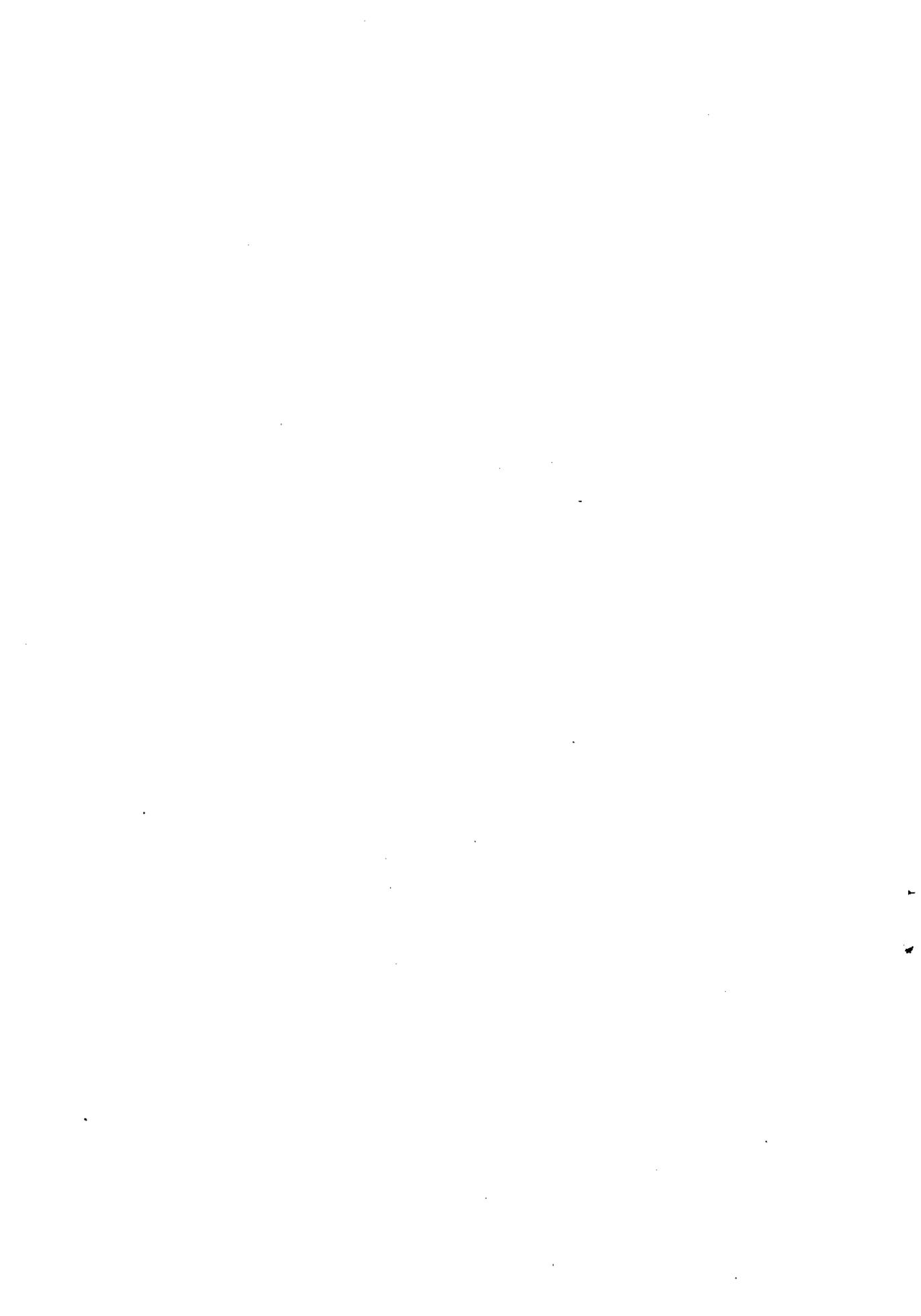
本 論文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公式意見이 아님

1. 70年代 美国의 对韓政策 展望과 韓國의 对備策

金 瓊 元

目 次

1. 머릿말	5
2. 對韓政策의 性格	9
3. 對韓政策의 展望	15
4. 對美外交의 基本方向	21
5. 對美外交의 方法	27
6. 結 論	30



1. 머 리 말

大韓民國의 國家利益과 安保體制에 비추어 볼때 韓.美關係의 重要性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美國이 第二次世界大戰 以後부터 韓半島에 對해 積極的으로 關與해 왔다는 事實에서 뿐만 아니라 적어도 今世紀 初 般부터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이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을 決定짓는데 相當한 影響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美國의 政策과 態度如何가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을 決定함에 있어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까닭은 根本的으로 두가지 次元에서 說明될 수 있다.

첫째로, 歷史的 次元에서 본다면 美國의 對亞細亞 役割은 亞細亞 地域에서의 傳統的인 秩序가 무너지면서 中國을 基底로 하는 一元的인 體制로부터 近代的 國際關係에도 轉換하게 했다는 事實이 무엇보다 重要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은 傳統的으로 中國에 對한 朝貢關係를 前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關係는 事實上 韓半島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亞細亞全域에 걸친 構造的인 現象이었다고 說明할 수 있다. (註1)

따라서 西歐勢力의 東進으로 因한 東洋自體의 傳統的인 秩序의 붕괴는 첫째로 中國의 沒落과 둘째로 民族國家制度의 形成, 그리고 세째로 勢力均衡體制라는 새로운 要請을 產出했던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支配的인 位置를 前提로 하는 傳統的인 秩序의 沒落은 반드시 多元的인 勢力均衡體制의 形成을 保障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民族國家制度에로의 轉換에 成功하지 못한 大部分의 亞細亞國家들은 오히려 「헤게모니」를 追求하는 勢力(日本)에게 多元的인 勢力均衡體制의 形成을 妨害할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만 했으며, 이로 因하여 亞細亞地域의 後進國들은 계속 不安과 戰火의 悲劇을 겪어야만 했었다.

亞細亞地域에서의 美國의 役割은 바로 이와같은 歷史的 轉換過程을 背景으로 하여 理解되어야만 옳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美國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多元的 勢力均衡體制의 形成과 이의 保障策을 追求한다는 點에서 그 歷史的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美國의 役割이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을 決定짓는데 있어서도 不可缺한 要因으로 作用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政治的 獨立과 安全保障의 問題는 國際秩序라는 觀點에서 볼때 一元的 秩序보다는 多元的 秩序를 要하는 것이며 現實的으로 美國의 役割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亞細亞에 있어서의 多元的 秩序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地政學的 次元에서 分析한다면 亞細亞의 多元的 秩序를 形成함에 있어서 主要強大國들 가운데 唯獨히 美國만은 韓半島에 對한 위협적인 存在가 될수 없다는 事實이다.

餘他の 強大國들은 韓半島에 對하여 直接的인 理解關係도 가지고

있으며 地政學的 側面에서도 領土的 統制라는 현실적인 威脅要因이 排除될수 없는 位置에 있다.

이에 反하여 美國의 對韓利害關係란 間接적인 同時에 非領土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을 近代의 民族國家의 形成이라는 歷史적인 觀點에서 理解한다고 하면 美國과 韓半島의 地政學的 關係는 그야말로 韓國을 爲해 樂觀的인 要素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美國의 對韓利害關係가 間接的이라는 事實은 또 하나의 다른 側面에서 본다면 重大한 問題點을 內包하게 된다. 왜냐하면 韓半島에 對한 美國의 利害關係가 間接的이라고 하는 事實은 그만큼 美國의 對韓國 態度와 政策方向에 있어서 소극적인 性格을 克服하기 어렵다는 副次的인 弱點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은 지난 半世紀를 通한 對韓政策에 있어서 實際적으로 一貫性을 缺如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展望에 있어서도 豫測不許의 要因들이 續出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韓國의 安保問題에 關한 美國의 態度를 보더라도 6.25 動亂이 勃發했던 1950年以前의 「웨더마이어」報告書나 「매카더」將軍의 東京에서의 記者會見, 그리고 「에치슨」國防長官의 發言^(註2) 등에 나타난 소극적인 態度와, 動亂 以後에 보여준 實際적인 行動에 있어서의 對韓國 姿勢는 상당한 差異點이 있는 것이며 一貫性 없는 態度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韓美防衛條約을 체결한 1954年을 起點으로 以後 20餘年

간의 同盟關係에 있어서도 美國의 對韓政策이 적지않은 不透明性을 內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國의 戰略的인 概念은 어떤 것이며 특히 軍事的인 役割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美國의 對韓公約은 어떻게 理解돼야 옳은 것이며 韓國에 對한 窮極的인 態度는 果然 무엇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問題들이 한결같이 提起되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앞에서 도 指摘했듯이 韓半島에 對한 美國의 利害關係가 間接的이라는 事實에서 起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要因으로 因하여 美國에 對한 韓國의 外交는 항상 可能性의 限界點까지 最大限으로 追求해야 하는 創意力있는 「비전」을 要求하는 것이며 生存問題와 直結되는 重大한 國家的 課題로 評價되는 것이다. (註3)

이러한 觀點에서 本 「메모렌덤」은 1970年代의 美國의 對韓政策을 包括적으로 展望하면서 이에 對処할수 있는 韓國의 政策과 姿勢, 그리고 外交活動의 方法問題에 對해 可能한 限 具體的인 그리고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코져 한다.

2. 對韓政策의 性格

美國의 對韓利害關係가 本質적으로 間接的이라는 事實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거니와 이같은 事實은 또한 美國의 對韓政策에 現實的인 方向을 規定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보다 具體的인 立場에서 美國의 國家利益을 考慮해 볼때 美國이 必要로 하는 韓國의 價値는 美國의 世界政策的 見地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韓半島의 戰略的인 意義는 窮極적으로 韓半島自体가 內包하고 있는 獨自的인 價値에서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世界秩序의 한部分으로서 韓國의 位置如何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論할때 무엇이 間接的인 利害關係나 하는것을 客觀적으로 定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直接的인 國家利益과 間接的인 國家利益을 分明하게 区分하는것도 어렵기 때문에 美國의 對外政策에 나타나는 歷史的인 一貫性이란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自身の 國家利益을 自身の 安全保障과, 「몬로. 독트린」에 依해 表現된 世界政策的 基本方向을 根拠로 한다고 理解할 것 같으면 于先 美國의 根本的인 國家利益은 美國大陸을 威脅할수 있는 어떤 勢力의 登場도 不許해야 한다는 政策的인 姿勢로 定義할수 있다.

그렇다면 實際로 人口의 分布現況과 工業生産力の 構造를 볼때

美国大陸에 威脅的인 存在가 될수 있는 潜在力을 갖는 地域이란 유럽과 亞細亞 뿐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美国의 第一次的인 国家利益은 유럽과 亞細亞地域에 있어서의 勢力統一을 事전에 防止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유럽이나 亞細亞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掌握하는 勢力이 現實的으로 登場한다면 美国으로서는 決定的인 타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美国은 過去 유럽에 있어서나 亞細亞에 있어서 항상 優勢한 強大國이나 同盟体制를 事전에 견제하기 爲하여 열세인 國家를 支援했던 것이다.(註 4)

특히 亞細亞에 있어서 美国의 全般的인 政策을 보면 1894年의 淸日戰爭에서는 日本의 勝利를 希望했지만 不過 몇년밖에 지나지 않은 1900年에 있어서는 中國의 權益을 擁護하여 이른바 「門戶開放政策」을 宣言했으며, 1904年의 日露戰爭時에는 또 다른 立場에서 日本의 勝利를 願했던 것이다.(註 5)

그리고 以後에는 淸國이 沒落하면서 日本이 「헤게모니」를 掌握할 可能性이 보이자 日本을 견제하기 爲해 1932년에는 소련政府와 國交關係를 樹立했으며 드디어는 日本과 對決하는 狀態가 되어 太平洋戰爭까지 치루었던 것이다.

이같은 美国의 對亞細亞政策은 上記와 같이 勢力均衡의 原則에 立脚한 것으로 亞細亞秩序의 一元化를 事전에 防止하기 爲한 構造的 要請에 依한 것이라고 分明히 밝힐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勢力均衡의 原則이야 말로 美國의 基本的인 國家利益을 現實的으로 例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第一次的인 또는 直接的인 國家利益은 根本的으로 秩序의 構造的 要請에 根拠한다고 客觀的인 說明을 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美國은 具體的인 要請으로 「유럽」과 「아세아」에 있어서 多元的인 勢力均衡을 維持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볼때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國의 利害關係는 間接的인 또는 第二次的인 關係라고 規定될수 있다.

왜냐하면 韓半島는 亞細亞秩序의 構造를 決定함에 있어서 「主行為者」 或은 「核心的인 行為者」(Essential Actor)^(註6)는 아닌 것이며 다만 主行為者間의 均衡을 영향할수 있는 位置에 있다는 點에서 그 重要性이 過少評價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理由때문에 韓半島는 美國의 世界政策的인 見地에서 볼때 第二次的인 次元에 屬한다는 것은 반드시 韓半島의 重要性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美國의 對外政策을 決定지운다는 立場에서 볼때 勢力均衡이라는 一次的인 目標에 비해 第二次的인 關係에 屬할수 밖에 없다는 相對的인 比重을 뜻하는 것이다.^(註7)

또한 美國의 國家利益이라는 基準에서 볼때 韓半島는 第二次的인 價值를 지닌다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이 國家利益의 第一次的인 目標라고 말할수 있는 亞細亞全體의 勢力均衡이라는 커다란 태두리 안에서 決定될수 밖에 없다는 現實的인 要請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美國이 韓半島에 對하여 어느程度의 積極的인 關心을 갖고 있으

며 어떤 代價를 支拂할 容의가 있는가의 問題는 結局 그것이 亞細亞의 勢力均衡政策에 있어서 얼마만큼 必要한가라는 實質的인 比重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이같이 實利的인 政治理論(Realistic Politics)에 立脚한 解釈은 理念的인 要素의 役割을 決定的인 前提로 받아들이는 理想主義的인 解釈과는 判異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對韓政策을 本質的으로는 勢力均衡의 目標에 對한 現實的인 要請으로 解釈한다. 해서 반드시 理念的인 要素의 役割과 否를 完全히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共產主義國家들과의 對立關係에 있어서는 理念의 重要性이 결코 過少評價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對外政策을 理念的인 構成物로 볼 수 없음은 自明한 事理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對韓政策의 本質에 있어서도 가장 決定的인 要因은 理念的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勢力均衡을 爲한 機能的인 要請에 있다는 것이 더 正確한 解釈이라 말할 수 있다.

具體的으로 美國은 亞細亞에 있어서 가장 큰 威脅의 要素로 登場하는 勢力을 向上 견제하려는 作業을 對亞細亞政策의 原則으로 삼은 것이며, 따라서 韓國에 對한 防衛公約도 이러한 威脅勢力을 견제하는데 必要한 努力임을 前提한 後에 비로서 成立된 政策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論理를 適用한다면 지난 20餘年間에 展開한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은 勢力均衡을 破壞할 수 있는 가장 큰 要素로서

의 中共을 견제하는데 置重한 것이며 對韓國政策에 있어서도 中共의 견제라는 基本的인 目標을 現實的으로 追求한 事例인 것이다.

그러나 過去 美國의 對中共政策에는 두가지의 前提條件이 있었다고 하겠다. 于先 첫째로는 中共과 소련간의 關係에 있어서 理想的인 同質性때문에 적어도 亞細亞에 있어서는 同一한 行動單位로 取扱할 수 있다고 假定한 것이며, 둘째의 前提條件은 中共은 態度와 目的의 意識도 그러려니와 그 實力에 있어서도 亞細亞에서 가장 큰 比重으로 다루어야할 強力한 存在로 간주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두개의 假定은 1960年代 後半期에 들어와서는 美國自身の 立場에서 볼때 現實的으로 反証되고 있다고 스스로 認識한것처럼 보인다.

于先 中. 朝紛爭은 1968年度의 珍寶島事件까지 유발시켜서 戰爭의 可能性이 보일 程度로 惡化一途를 치달렸으므로 美國은 中共에 對한 自己들의 評價가 正確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經濟의 急進的인 成長이 工業生産力을 基準으로 하는 自己들의 思考方式으로 評價해 볼때 오히려 中共을 능가한다는 새로운 判斷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은 亞細亞의 勢力均衡政策에 威脅的인 要素로 登場한 것은 中共뿐만 아니라 「소련의 進出」과 「日本의 再起」로 새로운 樣相을 띄고 있음을 深刻하게 考慮하는 契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情勢判斷이 美國으로 하여금 對中共 「테땅트」政策을 摸索하게 하는 重要的 理由로 看做되는 것이다. 또한 美國

은 世界政策的인 見地에서 보더라도 對소均衡關係라는 戰略에 있어서 最近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朝鮮의 軍備擴張을 考慮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朝鮮의 急激한 核武器 增加와 朝鮮 海軍의 現代的인 開發은 朝鮮 地上兵力의 優位를 감안할때 美國의 立場에서는 하나의 심각한 戰略的逃戰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共接近政策은 朝鮮을 전제한다는 새로운 目標가 前提되어 있음이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理由때문에 美國의 對匪細匪政策은 커다란 修正이 不可避했으며 具體的으로는 對韓政策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 70年代의 對韓政策은 어떠한 形態로 展開될 것인가? 그리고 對中共政策의 變動은 對韓政策과 결부시킬때 어떠한 意味를 갖는 것일까?

3 . 對韓政策의 展望

美國의 判斷에 依하면 亞細亞에 있어서 勢力均衡의 威脅要因은 中共, 或은 中共과 同質的인 共產主義勢力만이 아니라 中共以外에도 朝鮮, 日本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國際体制의 多元化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註8)

國際体制의 多元化 현상은 두말할 余地없이 美國의 對外政策의 多元化를 뜻하기도 한다. 二元的인 同盟体制를 前提할때 「友邦이 아니면 敵國」이라는 「덜레스」式의 理論體系가 實際적으로 適用될 수 있었다고 하면 美國의 多元化한 對外政策은 그러한 同盟体制의 구축으로 부터 이미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同盟國」과 「敵性國」이라는 二元的인 論理보다는 複雜하고 多元的인 利害關係가 오히려 有利하다는 現實的인 要請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關係의 代表的인 例로는 美國이 朝鮮을 견제하기 爲해 「파키스탄」을 支援한다는 事實등 目前의 現實에서 把握할 수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多邊化体制를 前提하는 限 論理的으로 不可避한 現象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또한 日本은 美國의 中共接近에 對處하기 爲해 한편으로는 中共에 의 接近을 試圖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朝鮮과의 關係개선에도 積極性을 보여줄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美國은 朝鮮과 中共, 그리고 日本사이에 勢力均衡을 維持

하려는 方針을 對亞細亞政策의 基本目標로 設定할것이 틀림없다고
내다볼 수 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多元的인 勢力均衡政策을 뒷받침하는에는 過去
의 二元的인 同盟體制下에서 美國自身이 負擔해야 했던 軍事的인
支援費는 감소해도 좋다는 有利한 結論에 이른것 같다 . 바로 이
같은 判斷이 이미 「닉슨·독트린」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이 事實인 것이다 . (註9)

以上과 같은 추세는 이미 對韓政策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거니
와 1970年 7月 8日에 公式的으로 發表되었던 駐韓美軍의 減縮宣
言은 그 具體的인 例라고 말 할 수 있다 . 그러니까 最少限 우
리가 予測할 수 있는 70年代의 展望은 亞細亞와 韓半島에 있어서
美國의 軍事的인 부담이 점차적으로 감소될것이 틀림없으며 그 減
少의 程度와 規模에 對해서는 지금의 단계로서는 상당한 異論이
있을수 있다 .

이렇게면 具體的인 事例로 駐韓美軍의 兵力規模가 現在의 約 4萬
名線에서 1個師團으로 減縮될 것인지 아니면 軍事顧問團(約 500名
推定)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1970年代 後半期에는
完全撤収가 實現될 것인지 正確하게 予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문제에 관해서는 美國自身을 除外하고는 그 누구도 斷言할 수
없는 極히 流動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

다만 이런 問題를 分析할 수 있는 論理的 根據를 유추할때는
다음과 같다고 말 할 수 있다 .

첫째 駐韓美軍의 戰略的機能은 本質的으로 戰爭抑制 (Deterrence)에 있다고 워싱턴政界에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트립·와이어」 (Trip wire)라는 概念으로 表現되는데 美國의 防衛公約에 對한 하나의 保障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戰略理論에 依하면 戰爭抑制의 方針이란 根本的으로 心理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駐韓美軍의 役割은 상징적인데 있다는 것이요. 그 効果는 心理的인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駐韓美軍의 規模問題는 韓國의 安保를 左右할 수 있는 決定的인 要素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같은 主張이 美國側의 態度를 支配하고 있는 일반적인 見解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駐韓美軍의 戰略的인 機能이 비록 상징적인 것이요 心理的인 効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機能의 現實的인 對象인 北僞의 戰略에 미치는 影響은 規模의 大少가 더욱 重要한 것이다.

바로 이같은 見解가 초조한 韓國側의 見解인 것이다.

따라서 果然 美國이 韓國과 同一한 戰略概念을 받아들이는가의 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는 것이며, 韓國의 對美外交는 韓國自身의 戰略概念을 美國側에 納得시켜야 하는 또하나의 課題를 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1970年代 後半期에는 中共의 核武器 使用能力이 상당한 戰略수준에 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現在의 美·中 關係와 같이 美·中共間에 있어서도 「相互戰爭抑制」 (Mutual Deterrence)라는 均衡政策이 미구에 成立될

것으로 展望되며, 따라서 美國은 韓半島의 防衛問題에 直接的인 責任을 감소시키려는 自發的인 對策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때 中共은 美國다음으로 核武器를 갖 추는 強力한 國家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限, 最惡의 狀態에 이르렀을때 美國本土에 對한 공격까지도 全 혀 可能性이 없는것은 아니며, 이럴때 美國은 韓國의 安全을 保障 하기 爲해 自身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비상한 用意가 있겠 는가의 여부는 심각한 問題가 아닐수 없다.

이런點에 있어서는 美國의 戰略的인 方向을 現實的으로 分析해볼때 悲觀的인 數 밖에 없는것 같다.

그리고 日本이 核武器를 保有한다고 해도 美國政策의 基本方向에는 별다른 影響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日·中共間의 核均衡 關係는 오히려 美國의 努力均衡政策과 一致될수도 있기때문에 美國 의 부담을 감소하게 하는 間接的인 惠澤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이 韓國에 對한 防衛부담을 減少하려는 政策에는 두가 지의 變數가 作用하고 있으니 그것째로는 韓·美間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및 文化的關係가 어느程度로 깊으며, 또 폭넓게 展開되어 왔 는가의 문제와, 둘째로는 韓國의 自主國防이 어느정도의 水準에 이르 렸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에일大學의 「부르스·렛셀트」教授의 研究에 依하면 美國의 防衛 公約, 移行確率は 美國과 그 國家間의 經濟的 및 文化的關係의 深度 에 따라 決定되는 것으로 實證되었다.

따라서 美國의 對韓政策을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의 하나는 韓國 自身の 外交方向과 그力量에 달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外交政策이 美國과의 經濟的·文化的인 利害關係를 얼마나 깊숙하게 갖도록 하는가에 重要한 關鍵이 달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美國의 對韓政策을 決定하는 要因中에는 國際적인 情勢라는 또하나의 變數가 수시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第二次大戦이 종식된 以後 美國은 20余年間을 冷戰體制를 基底로 하는 國民的總和를 유도해 왔으나 1960年代 後半期부터는 越南戰의 介入때문에 분분한 混亂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은 소위 新孤立主義 배자는 新左翼계통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觀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美國에서 提起된 越南戰의 介入에 對한 회의와 批判은 政策方向과 價値觀까지를 全面的으로 否認하는 勢力은 極少數에 不過하며, 그밖의 大部分은 越南戰에서의 方法과 戰略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戰略方法의 批判者들이다. (註11)

이같은 多數國民의 主張들을 보면 첫째로 美國은 亞細亞에서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되도록 참가해야 하며, 可能한 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絶對적으로 軍事行爲를 피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軍事介入의 必要性이나 可能性조차 排除하기 爲해 國際적인 모든 紛爭을 政治적으로 해결함으로서 緊張緩和를 摸索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現象維持政策을 실시해야 한다는 平和

的인 해결에 集中되고 있다 .

韓國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論理가 適用되는 것으로 軍事介入의 回避, 紛争의 政治的解決, 그리고 緊張緩和를 爲한 現象維持 등 70年代의 對韓政策은 세가지 方向으로 集約되는 것이다 .

다만 앞에서 指摘한 對韓公約의 문제는 韓國自身の 外交力量과 国力, 그리고 基本的인 자세 如何에 따라 流動的인 性格을 지닌다고 볼때 앞으로의 對美外交는 상당한 試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4. 對美外交의 基本方向

大韓民國의 國家利益을 考慮해 볼때 韓美關係가 얼마나 重要한가의 問題는 再論의 余地가 없을줄 안다.

그러나 美國과의 友好關係를 爲해 韓國이 支拂할 수 있는 合理的인 代價는 果然 어떤것이어야 하느냐는 問題는 그리 간단한 問題가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 理想的인 條件下에서도 두개의 國家간의 利害關係는 完全히 一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韓國의 경우는 美國自身の 立場과 態度가 漸次 變動하고 있다고 볼때 韓美간의 利害關係에 調和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本「메모렌담」에서는 以上과 같은 合理的인 代價의 支拂 問題는 取扱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들이 美國의 對韓國支拂을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韓國이 추구해야 할 對美 政策의 基本方向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問題만 집약적으로 論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方法일것 같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對美政策의 基本方向은 美國의 國家利益이라는 第一次的인 要請과 적어도 一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分명한 結論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匪細匪에 있어서의 美國의 第一次的인 國家利益은 勢力均衡의 形成과 그 保障策에 있는 限,

韓國의 國際政治的 役割도 이같은 多元的体制의 確立与件과 긍정적인 關係에서 考慮되어야 함이 自명한 結論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더욱이나 最近의 亞細亞情勢의 變動과 함께 國際秩序의 多元化 現象을 일단 前提하는 立場에서 볼때 上記와 같은 結論이 더욱 明確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

美國은 亞細亞地域에 있어서의 多元的인 勢力均衡을 爲해 朝鮮뿐만 아니라 日本까지도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을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것이다 .

따라서 韓國은 對美政策을 具現함에 있어서 對日關係와도 연결될 수 있는 有機的인 次元에서 考慮해야 한다 .

그러니까 二元的인 体制下에서의 對美關係가 對共產圈과의 關係에서 만 意義가 있었다면 , 多元的인 体制下에서의 對美關係는 對中共關係와 더불어 對소, 및 對日關係까지를 包含하는 多角的인 見地에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對日關係는 두말할 必要도 없이 共產陣營과 自由陣營의 對立이라는 立場에서 볼때 重要的 意義를 지니는 것이나 最近의 日本의 動向을 보면 거의 絶對的인 信念으로 實利主義를 追求하고 있음을 無視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특히 美國의 立場에서 考慮해 볼때 韓美關係의 意義는 비단 對中共關係에 만 局限되지 않으며 對日關係에 있어서도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觀點에서 70年代의 國際關係는 50年代나 60年代와 비교

해 볼때 상당한 差異를 予想할 수 있다. 그리고 美國에 對한 韓國의 戰略的價値는 오히려 增加되는 傾向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多元的인 體制를 維持함에 있어서 亞細亞에 있어서의 「主行爲者」들을 相互 견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에 前提된 以上 韓國의 特殊한 國際的役割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韓國의 對外政策이 對日關係에만 치중하게 될때 美國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韓國의 戰略的인 價値가 감소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韓國의 立場으로서는 對美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考慮해야 할 點이 美·日·韓國이라는 有機的인 三國關係와 미묘한 勢力均衡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立場에서 韓國이 一方的인 자세만을 取한다던가 單純한 對日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美國의 立場에서 볼때 하나의 커다란 政策上의 過誤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美國의 軍事的인 負擔減少가 自主國防을 배양함에 있어서 자칫하면 美國과의 安保關係마저 犧牲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自身の 國防力 伸張은 自然히 美國의 役割을 不必要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自主國防의 努力自体를 拋棄해야 한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다만 韓美間의 共通되는 安保概念을 事전에 設定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를 維持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美間에 共通된 安保概念이 果然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本稿에서

상세히 取扱할 수 없으나 韓國의 防衛役割과 美國의 「디터런스」와 對峙런 「디터런스」로 区分되기 때문에 事實上 全面戰爭의 概念부터가 問題視되고 있는 것이며, 일단 韓國의 戰略문제에만 局限시켜 본다면 韓國의 防衛役割이 韓半島의 實情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檢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理由때문에 國軍現代化의 概念自体가 問題視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軍의 現代化란 반드시 장비의 西歐的인 機械化만을 意味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韓國的인 狀況이 要請하는 合理的인 兵力의 育成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概念이 設定될때 限하여 비로서 韓美間의 安保概念이 共通된 見解에서 樹立될 수 있다.

따라서 單純한 物量的 思考方式은 일단 止揚하는 立場에서 機能的인 安保概念을 設定해야 하며 이같은 概念의 設定問題는 國防政策에서 뿐만 아니라 對美政策의 展開過程에도 必須的인 前提條件이 되는 것이다.

세째로 對美政策은 美國의 緊張緩和政策을 無視하는 立場에서 마련될 수 없다. 이미 앞서서도 指摘했듯이 美國은 匪細匪地域에 있어서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꺼려하기 때문에 現象維持를 前提로 하는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것이요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더욱 뚜렷한 現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은 더욱 심각한 現實的인 特殊狀況에 부딪칠

것이 거의 틀림없는 展望이라 말할 수 있다.

北傀로 부터의 威脅이 계속되고 있는限 이른바 「緊張緩和」라는 國際的 추세는 韓國에게 커다란 試練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緊張緩和」라는 協商 무드는 韓國으로서도 바람직한 現象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自身에 依해서도 이미 「8.15宣言」을 통해 뚜렷이 밝혀놓은 課題인 것이다. (註13)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緊張緩和를 爲해 北傀의 威脅을 無視한다거나 過少評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對美政策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對北傀安保態勢만이 중요한 問題가 아니란 것이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음을 어떻게 國際적으로 說得시킬수 있는가 라는 外交政策이 問題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는 결국 韓國外交의 技術的인 問題에 屬하는 것으로 다음장에서 取扱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美國의 公約을 認識함에 있어서 적어도 70年代後半期에는 駐韓美軍의 減縮현상이 不可避할것으로 看做해야 한다.

따라서 駐韓美軍의 減縮問題는 韓國軍의 現代化作業과 不可分の 關係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다른 一面에서 생각해보면 駐韓美軍의 減縮과 함께 美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인 交流關係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切實한 課題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對美政策은 앞으로 經濟的인 側面과 文化的인 側面에 對하여 더욱 큰 比重을 두어야만 한다.

經濟的으로는 美國資本의 유치문제와 他國資本의 유치문제에 比重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文化的으로는 民間外交의 活用方法을 더욱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 .

要컨대 이같은 交流 문제는 韓美間의 多角的인 關係를 더욱 深化하는 意味인 것이다 .

結論的으로 對美政策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 ① 韓國外交의 多元化
- ② 安保概念의 合理化
- ③ 外交技術의 現代化
- ④ 經濟的 및 文化的交流의 積極化

以上 네가지의 問題點 가운데 ①項과 ②項에 對해서는 이미 基本的인 方向을 提示했으며 보다 具體的인 論議는 또 다른 「메모렌덤」 을 要하게 된다 .

따라서 本稿에서는 계속해서 ③項과 ④項에 對해 간략하게 壓縮하여 論하고자 한다 .

5. 對美外交의 方法

이른바 모든 種類의 「外交行爲」는 相對國家의 政策決定 過程에 直接 間接으로 미칠수 있는 影響力의 增加를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면 對美外交에 있어서도 韓國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美國의 政策方向을 유도하는데 그 궁극적인 目標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對美外交의 能率은 基本的으로 美國自身の 政策決定 過程의 構造에 依해 決定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韓國의 外交政策이 韓國의인 概念과 價値觀으로는 아무리 優秀하다고 判斷될지라도 그것이 當事國인 美國의 政治體制에 符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美國의 政策的인 出力(Policy output)에 별다른 影響을 줄수 없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傳統的인 外交政策이 限界點에 이르렀음을 새삼스럽게 論議하지 않고져 한다.

그러면 美國의 政策決定 過程은 어떤 構造를 갖고 있는가?

本稿의 制限된 紙面에서는 具體的인 서술을 할 수 없으나 美國의 政策決定過程은 韓國의 그것과 比較해 볼때 本質적으로 多元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註 14)

周知하고 있듯이 美國의 政治體制는 大統領中心體制이면서도 議會的 機能, 특히 分科委員會의 役割과 이른바 壓力團體의 形勢力이 同時에 作用하고 있다는 點에서 多元的인 構造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行政府는 항상 立法府와 「實力者」 그리고 輿論으로

構成되는 外的環境과 相互緊密한 關係下에서 政策的인 案件을 選択하게 된다 .

그런데 傳統的인 外交란 行政府만을 對象으로 하는 公式「체널」(Channel)에 만 依存하는 것이 一般的인 特徵이라 指摘되고 있다 .

따라서 公式的인 外交의 限界點은 外交相對國의 政治體制가 多元的이면 多元의 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이같은 限界點은 韓國의 對美外交에도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

美國의 輿論에 폭넓게 호소한다 던가, 아니면 美國의 外交政策에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學者와 言論人을 對象으로 진지한 對話의 길을 摸索하는등 이른바 「非公式 侵投」(Informal Penetration)의 方法에 對해서는 우리들의 對美外交에 뚜렷한 試圖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런點에서 對美外交의 現代化問題는 곧 非公式的인 民間外交를 積極的으로 活用할 수 있느냐는 問題와 直結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리고 또한 重要한 것은 公式外交 自体의 方法을 現代化하는 문제인 것이며 특히 對美外交에 있어서는 美國의 政治文化的인 感覺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機能的인 外交를 具現해야 한다 .

그리고 韓國的인 價値觀을 止揚하여 적어도 接近方法에 있어서 만큼은 美國的인 體制內에 uto 과고 들어 있어야 하며, 說得力있는 外交수완을 적절히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

勿論 外交의 現代化란 理論的으로는 單純하면서도 實際的으로는

어려운 것이否認할 수 없는事實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行爲기구는 그러한 기구에 應하는 社會의 一般적인 價値基準에 依
據하고 있기 때문에 相對國의 現實을 基準으로 한 現實적인 外交
기구를 構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것이다.

그러나 이미 「非公式 侵投」라는 接近方法은 國際社會에서 通用
되고 있는 常識적인 方法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韓
國만이 落伍者가 될 우려조차도 있다고 하겠다. 이런點에서 對
美外交의 現代化를 爲해 韓國은 政治적인 決斷을 必要로 한다.

國內적인 制限性を 克服하고 國際적인 現實에 適應할 수 있는 合
理的인 基準을 設定해야 하며 보다 客觀적인 立場에서 能率적인 外
交體制를 구축해야 할 切實한 要請이 부과되는 것이니, 특히 國際情
勢가 轉換되고 있는 70年代에 서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6. 結 論

70年代의 韓美關係는 커다란 轉換點에 들어서고 있다.

過去 四半世紀의 韓美關係가 거의 一方的인 依存關係에 安住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면 새로운 形態로 轉換하고 있는 多元的인 國際秩序內에서는 協力的인 體制 (New Partnership)로 옮겨 가야 한다.

모든 歷史的인 轉換過程은 創造의 機會를 주는가 하면 同時에 危險스런 순간으로 評價되기도 한다.

앞으로의 對美關係는 자칫 잘못하면 不信과 背理의 關係로 惡化될 수도 있으며 同時에 生産的인 新同盟體制로 發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개의 可能性 가운데 어느것에로 귀착될 것인가의 문제는 韓國自身의 姿勢와 政策的인 方向, 그리고 能力如何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本 「메모렌덤」은 美國의 國家利益을 既定事實로한 對韓政策을 展望했으며 韓國의 安保를 基本命題로 한 對美政策을 提示한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根本的으로 合理的인 現實主義를 바탕으로 했음을 첨가하여 밝히는 바이다.

다만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國土統一의 民族的課題와 本 「메모렌덤」이 提示하고 있는 對美政策과의 사이에는 어떤 關係가 있

느냐는 것이다 .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本「메모렘」은 安保의 問題를 基本으로 하여 現象維持라는 國際的 与件을 具體的으로 論했기 때문에 前提의 永久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誤解할 可能性이 있는것 같다 .

그러나 歷史에 있어서의 永久化 問題는 實在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더더구나 單一民族의 永久的 分斷이란 想定하기 어려운 假定인 것이다 . 오히려 우리들은 分斷狀況의 歷史的 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한다면 이른바 「現象維持」라는 概念 自体를 動的으로 理解할 수도 있는 것이다 .

美國은 이런 點에서 비록 現象維持政策을 追求하고 있어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본다면 統一이라는 歷史的인 過程에 肯定的인 態度로 임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態度를 취하도록 하는것이 韓国外交의 궁극적인 挑戰일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것은 비단 對美關係에 局限되지 않으며 世界秩序속에서 韓國이 取할 態度와 方法이 아닌가 한다 .

따라서 本「메모렘」은 結論的으로 合理的 現實主義에 立脚한 積極的인 對美外交의 추구가 韓國安保의 立場에서나 國土統一이라는 見地에서 봐도 바람직한 政策方向이 된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는 立場이 된다 . (끝)

註1 : John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68.

註2 : 웨더마이 어報告書에 關해서는 Soon-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227

애치슨發言에 關해서 애치슨自身은 그의 회고록에서 마카서장군의 東京記者會見의 例를 들어 변명하고 있다.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1970, P. 358

註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놀라운것은 韓美關係에 關한 단 한편의 体系的인 연구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學界의 수치일뿐만 아니라 國家的인 見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註4 : 이러한 해석은 소위 勢力政治學派에 屬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古典的인 연구들에 依하여 代表된다.

Nicholas J, 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1942.

Samuel F, Bemis, A Short History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Holt, Rinehart & Winston, Inc, New York 1959

註5 : John K. Fairban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P.317

- 註 6 : 「主 行爲者」라는 概念은 「모튼 캐플란」教授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
Morton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John Wiley Sons. Inc., New York, 1957
- 註 7 : 美国의 国家利益을 세계의 다른 次元으로 区分하여 해석하는 例는 다음 研究에서 찾아볼수 있다 . Bernard k, Gordon, Toward Disengagement in Asia : A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1969,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J. PP. 9-30.
- 註 8 : 國際体制의 概念에 관하여는 다음 参照 : Kyung-Won Kim, Revolution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0, PP. ix -xx1, 117-135
- 註 9 : 閔錫弘 * 너슨 독트린의 進行과 展望 * 韓國安全保障論叢 第 3 輯 ,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局 政策企劃室發行 , 1971. PP. 127-149.
- 註 10 : 예일大學의 부루스 러셋트教授의 연구에 의하면 美国의 방위 공약이 실제로 効果있는 확률은 美国과의 경제적 및 文化的 交流關係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Bruce Russett, "Calculns of Deterrence"
- 註 11. Robert E. Osgood, Robert W. Tucker, and Others, America and the World, From The Truman Doctrine to Vietnam,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70, PP. 27 -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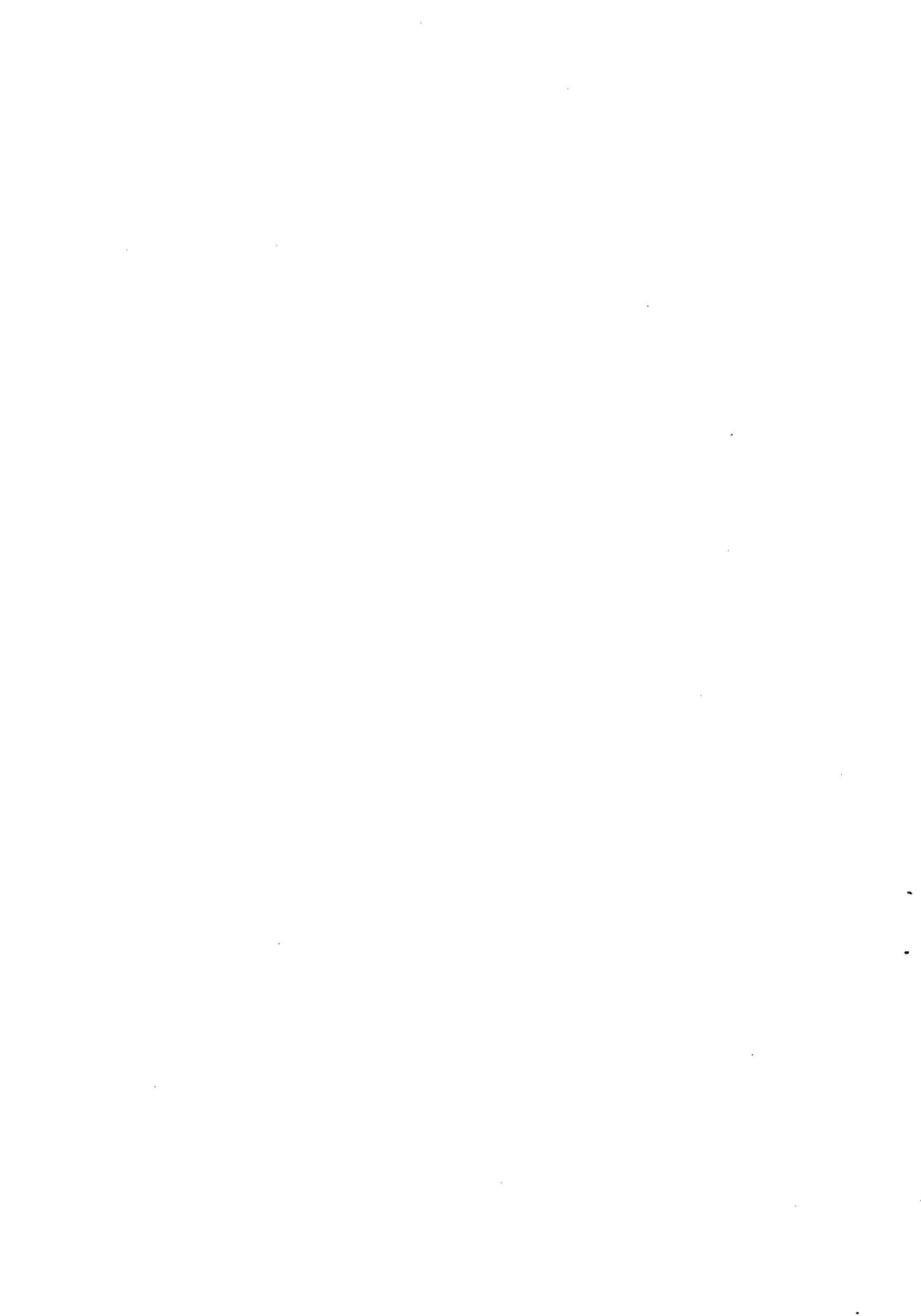
- 註 12. 最近아세아情勢變動과 韓國의 安保참조, 高大重細重問題研究所
發行 1971, PP. 1-17.
- 註 13: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참조,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
會編 1971年發行 P.264
- 註 14: 抽稿 “對美外交強化文案” 참조, 國際問題研究所研究論叢第
13號 1971. 7. PP. 61 - 87
美國의 政策決定過程의 代表的인 케이스研究로는 다음을 참
조.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2. 70年代列強의 對韓政策展望과 安保統一外交의 方案

노 재 봉

目 次

1. 70年代의 狀況	39
2. 現在의 政府政策	40
3. 韓國의 對列強戰略的 重要性	46
4. 北傀의 軍事力評價	49
5. 中共外交의 影響	52
6. 美.日政策의 趨移	57
7. 結 語	62
要 約	63



1. 70年代의 狀況

世界政治의 兩極的인 狀況의 變化가 招來하는 영향이 가장 민감하게 미치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한국임은 두말할 것 없다.

우선 그 變化의 一次的인 樣相을 생각해 보면 軍事力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二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軍事·政治를 아울러 기준으로 하면 미·소·中共의 三極體制 그리고 經濟力을 기준으로 하면 미·歐·소·日의 四極體制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地域的으로 고쳐 생각해 보면 兩아시아는 미·소·中共, 東아시아도 미·中共·日이란 三極體制로 나타난다.

冷戰的인 分斷國家인 한국의 狀況은 이 보다 더 복잡하여 表面上의 條件에서만 보면 미·소·中共·日의 四極관계 속에 處해 있다 할 것이나 좀 더 具體的으로 戰略的인 立場에서 생각해 보면 그에 對하여 北傀의 狀況變動主導權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은 뒤로 미룬다.)

이러한 變化는 世界政治에 있어서의 單位國家들의 外交戰略에 變更을 요청하게 되었다. 닉슨大統領이 말한대로 對決의 時代가 지났다고 보는 새 情勢의 確認은 그대로 政策의 變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對決政策이 兩極時代의 政策이 있다는 점에서 곧 世界的인 封鎖政策이 實効性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對決을 對象으로 한 封鎖政策을 곧 軍事政策이었다. 이것이 새로운 狀況에 따라 再調整

되어 本格的인 外交政策을 主軸으로 하는 軍事政策이란 것으로 變化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이러한 變化는 지금까지 兩極體制속에서 雙方의 前進軍事基地의인 性格을 지녀 오던 分斷된 韓半島의 位置와 그戰略的意味에 중대한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도리켜 생각해 보면 冷戰時代에 있어서의 韓國의 安全이나 防禦問題는 至極히 간단하고 취급하기에 쉬운 것이었다. 지금의 狀況은 그와는 달리 冷戰的인 緊張의 영향은 如前히 지속되고 있는데 反하여 急激한 情勢의 變化는 姿勢 變更을 爲하여 必要한 時間的인 여유를 充分히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韓國은 好不好間에 새로운 安全·統一外交에 關한 政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되어 있다.

이 問題는 다시 말하여 ①明確한 狀況의 判斷 ②現實的인 戰略 概念의 整備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어느 程度의 相對的인 獨自的인 外交政策의 樹立이란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課題의 個別的인 分析은 반드시 論理的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本論에서의 分析은 그 三課題를 混合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現在의 政府政策

우선 分析의 基点을 韓國政府의 政策을 바탕으로 出發해 보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그 政策을 中心으로 뻗어 나가 보면 現狀況과 부딪치는 點에서 어떤 것이 問題되는가가 부각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韓國外交政策의 大前提를 이루었던 것은 反共·統一이었고 그것을 爲한 實踐의 外交活動의 中心은 UN을 對象으로 했던 것이다. 이 政策의 起源的인 환경은 兩極時代에 있어서 美國의 UN 加入國의 大多數를 制禦할 수 있었던 狀況이었다. 이에 따라 分斷國인 韓國은 할슈타인 原則을 적용하여 왔으며 그것으로써 또한 對北 封鎖가 外交的으로 可能하였었다.

最近에 이 할슈타인 原則은 外務長官의 言明에 따라 폐기 되었으나 「유엔을 통한 統韓政策」이란 것은 계속 公式的인 政策으로 남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問題가 나타나게 된다. 이번 中共의 UN 加入 票決에서 보듯이 앞으로 UN을 어떻게 利用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今次 總會에 韓國問題를 上程시키지 않는 方向으로 그 結果를 보게 된 것은 그 뒤에 잇따른 中共加入決定을 보건데 극히 다행한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韓國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UN에만 中心을 둔다면 72年의 總會가 우리에게 有利하게 움직이리라고는 바라보기 거의 힘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主張을 그대로 내걸고 UN 外交를 展開한다는 경우엔 韓國의 最大盟邦인 美國과의 主要한 政策的 차질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中共이 加入된 새로운 UN을 對象으로 하여 적어도 來年까지 美國은 中共과의 어떤 「共通認識」을 구축하려는 努力을 다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런 경우에 從來의 韓國의 對UN 政策은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할 때 來年봄까지 UN

의 모든 기구에의 加入을 完了할 것으로 보이는 中共에 依해 심한 공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현상유지속의 정책조정을 해 나가는 미국의 政策向方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공과 함께 越南問題와 日本問題에 關한 共通認識을 追求하려 하는 限에서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積極的인 現狀타격요인을 배제하려 할 것이다.

비단 UN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直接的인 外交政策에도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은 모두 짐작하는 바와 같다. 한국외교가 미국을 中心으로 尙속도 움직이고 있기는 하되 그것에 對한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外援삭감에서 오는 것과 철군문제이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계속 反對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바로 그 反對 自体가 미국과의 戰略概念의 차이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日本은 아직까지는 大體로 미국과 外交面에서 同調하고 있기 때문에 對美政策에 關係되는 限 日本을 일단 除外하고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미국과 中共과의 關係가 문제되는 셈인데 미국의 中共에 對한 尤화政策으로 말미암아 설령 미국의 對極東 또는 對韓基本戰略에는 變化가 없다하더라도 한국이 지금까지의 戰略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韓國 自体의 戰術概念에 커다란 차질이 不可避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일본과의 關係에서도 나타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對中共 平和政策의 일환으로 沖繩의 日本 반환을 前提로 하여 미국은 최근 로저스國務長官이 말한 바와 같이 美國

을 代身하여 亞細亞地域에서 日本의 役割이 特히 經濟적으로 增大되
어질 것을 希望하고 있는데 이것은 日本에게 곧 自體의 軍事力을
適當한 線에서 保有할 것과 그리고 積極的인 支援國으로써 平和憲
法의 改正問題로까지 물고 가게 된 事態를 빚게 된 것이다.

長期的으로 이러한 것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短期的으로는 이 역
시 어려운 시련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곧 소련과 中共과의 문제 때문이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現狀 유지 세력인 소련은 日本과 代中共關係에 있어서 一種의 合
意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日本外交의 方向이 소련에게
겨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現在로서
는 中共과의 對立을 피해야 할 處地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써는 短
期的으로 日本과 어떤 강력한 유대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 問題를 생각컨대 어느 면에서 보다 從來의 韓國의
外交政策을 그대로 遂行하려 한다면 그 困難은 實로 全面的인 것
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한국을 위요한 四大列強은
적어도 72年까지는 現狀유지의 무드 속에서 움직일 것이 確實한
데 그렇게 본다면 그때까지 韓半島 自體內에서 어떤 現狀打破的인
事態가 야기될 수 있는 可能性을 어떻게 배제하며 그것을 爲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의 事態의
추이에서 본다면 休戰線이라고 하는 極히 不安全한 境界線을 사이
에 두고 한국과 北傀가 赤裸裸하게 直面하게 된 셈인데 이러한
事情이 果然 次元의 內容을 갖느냐가 문제시 된다.

政府의 見解에 따르면 最近 國家非常事態의 宣言에서 보듯이 北傀는 全面的인 戰爭挑發의 準備를 完了하고 전격적인 冬季作戰을 企圖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北傀는 南韓政府의 파괴를 위하여 또는 그들이 主張하는 統一을 爲하여 武力的인 手段에 全的으로 의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當場의 武力的 위협에 대처하기 爲하여 南韓도 軍事·國防 爲主의 體制로 改編해야 하는 것이 理致上 合당한 일이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한가지 論理的인 모순을 發見하게 된다. 卽 歷史學에서 말하는 음모說과 같이 北傀가 金日成의 환갑까지 武力的인 赤化統一을 達成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또는 全面的인 戰爭을 감행할 意圖가 있다는 것이 事實이라고 한다면 結果的으로 南韓이 有利한 立場에 놓이게 되어 金日成은 스스로의 目的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萬若 北傀가 現在 戰爭을 도발한다면 韓半島에서 어떤 緊張을 원치 않는 것으로 미국과 묵시적인 合意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련의 적극적인 後援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 現在의 中共도 國際社會에서의 活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하여 최근 印·파 戰爭에 對한 態度에서 보듯이 적극 介入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만약 개입한다 하더라도 소련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北傀가 戰爭을 도발하면 中共이 그렇게도 강인하게 요구해 오던 미군철수는 한국에서 中斷되고 日本의 現在의 위치와 힘을 생각해서라도 南韓을 爲한 적극적인 支援을 하지 않을 道理가 없어진다. 이에 더하여 그들이 目標로 하는 南韓政府는 훨씬

보강될 것이 틀림 없으며 한편 民心의 결속을 逆으로 보강해 주는 것이 되어 政治戰爭의 目的을 達成하기에 어렵게 된다.

即 北傀의 全面戰의 挑発은 現在로써는 北傀의 孤立을 自招하게 되고 오히려 南韓에서는 有利한 후원세력과 힘을 갖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모순을 일단 前提하고 韓國에 對한 列強들의 政策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韓國의 對列強戰略的 重要性

大陸의 突出部分인 韓國이 列強에게 갖는 重要性이란 主로 戰略的인 것이다. 따라서 万若에 南韓이 赤化하는 경우 日本은 그것에 따라 間接侵略·國內動搖의 위협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서 韓半島에서의 熱戰의 防止는 곧 美國의 防衛目的에 直接 연결된다. 日本에 대한 어떠한 實質的인 위협은 美國의 太平洋地域의 利益에 一大打擊을 加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中共의 進出을 中性化시키려는 極東戰略에 根本的인 變化를 招來하는 것이다. 한편 中共에게 있어서 韓半島의 戰略的 重要性은 앞서 말한 日本과의 關係에서 뿐 아니라 中共의 工業地帶인 滿洲地域의 保護에 絶對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 黃海를 사이에 두고 本土大陸에 對한 直接的인 攻擊의 基地가 된다. 朝鮮에게 있어서는 主로 朝鮮極東함대의 基地인 우라디 보스톡 을 基点으로 東海의 制禦가 對日本戰略關係나 또 외항으로 이르는데 重要한 의미를 갖고 있다.

四大列強에게 이러한 意味를 지니고 있는 戰略位置에 있는 한반도가 現在 어떤 형태의 戰略關係의 構造 속에 들어 있는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이것은 먼저 越南戰의 추이와 아울러 생각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美國의 對越南戰目標은 中共의 進出에 대한 封鎖에 있었다. 따라서 越南戰이 擴大되어 가던 때에는 中共이나 北傀에게 그 戰勢가 極東의 다른 紛爭地域으로 擴大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 그와 아울러 國內의 戰鬪態勢의 強化에 들어

갔다. 그러던 것이 푸에블로호 事件과 EC121機 事件으로 소련의 態度에 따라 變化가 일어났다. 兩事件은 모두가 東海에서 일어났는데 이 事件들을 契機로 미국과 소련은 雙方이 東海에서의 對決을 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休戰線을 연장한 以北의 東海는 소련의 戰略圈에 속한다는 것을 미국이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相互의 戰略圈의 충돌은 피한다는 結果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現在 東海에는 近 百隻의 소련의 잠수함이 드나들고 있는 형편이다. 東海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미·소의 現狀유지政策의 일단의 表現이다. 이 地域에서 소련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커다란 理由는 우수리江 流域에 걸친 中共과의 緊張이다.

한편 미국도 1969年 下半期以後부터 韓半島에서의 積極인 緊張완화 政策을 追求해 왔다. 이것은 곧 對中共政策과 直結되어 있는 것인데 69年以後부터 미국의 予算과 관련하여 對中共核武器 使用에 관한 論議가 나오지 않는다. 現在로서는 國防予算中에 核武器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한 說明은 거의 全적으로 소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核攻撃의 위협이 소멸 되었다는 것은 趁兩戰을 政治적으로 해결하려는 政策의 本格的인 追求와 그를 위해서는 中共과 政治的通路를 찾아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中·소 紛爭이 大 규모戰爭으로 번질 可能性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政策變化는 北傀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 틀림 없다.

그런데 여기에 中·소紛爭과 北傀와의 關係를 戰術面에서 살펴

불 必要가 있다. 北僞가 일단은 美國의 東海戰略의 變化에서 一種의 안도감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그 反面 中 소분쟁이 주는 심각한 不安에 直面하고 있다.

美國側의 판단에 따르면 우수리江으로 부터 新疆省에 이르는 방대한 국경에 걸친 全面的인 戰爭의 可能性은 이제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남아 있어 이것이 우수리江 流域에 集中되어 있다. 이 流域은 소련의 樞東시베리아에 重要的인 의미를 갖는 地域으로 우라디보스투에 이르는 石油파이프·라인도 문제가 된다.

한편 中共에게는 이 地域이 滿洲의 防衛를 위해 決定的인 곳이다. 여기에 雙方의 軍事刀이 集結되어 있다. 지금 소련은 約 百萬의 軍隊를 集中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中共 또한 越盟과의 국경지대에 配屬해 두었던 軍事刀의 一部를 美·中 和解에 따라 그 곳으로 移動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共은 北에서의 소련의 위협, 남에서의 미국의 위협이란 兩面위협에서 이제는 主刀을 北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投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戰略的으로 이 地域에서 戰爭이 발생하면 北韓의 高嶺 地域一部가 作戰區域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地域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有難時의 退路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北僞로써는 現在 이 地域에 主鬚 軍事刀을 配屬해 놓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兩韓에 대한 힘의 限界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북괴의 軍事力 評價

以上の 戰略狀況을 前提로 하여 北傀의 對南 軍事力의 評價를 試圖해 보는 것이 北傀의 위협을 측정하고 方策을 강구하는데 重要하리라 믿어진다.

그런데 英國의 戰略問題研究所에서 나온 資料에 의거하면 大略 北傀와 南韓의 軍事力은 다음과 같다.

먼저 北傀를 보면 陸上兵力은 歩兵師團 18, 戰車師團 1, 歩兵旅團 5, 兵力 34萬5千, 海軍은 潛水艦 四隻, 코마르형미사일艦 四隻을 包含한 83隻, 그 兵力 約1萬. 空軍은 IL28型 60機 MIG 21型 30機 MIG 19型 50機等を 포함한 約 6百機 兵力은 約 3萬으로 되어 있다.

이에 比하여 韓國側은 陸上兵力은 歩兵師團 19, 戰車旅團 2等 55萬名. 海軍은 驅逐艦 3隻, 護衛艦 四隻, PF 4隻을 包含할 72隻, 1萬7千名, 그밖에 海兵隊가 約 3萬. 空軍은 F 5型 54機 F86 D型 95機, F86F型 10機等 都合 2百數十機 兵力은 約 2萬5千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한국에는 푸에블로호 事件 以後 美空軍의 移動에 依하여 約 150機가 保有되고 있다고 믿어지는데 이것은 量的으로 작으나 質的으로는 極히 強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數字가 믿을만한 것이라면 軍事力은 일단 均衡이 잡혀 있는 셈이고, 北傀로써는 中·소의 介入을 보지 않는 限 大規模의 軍事行動은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숫자에 대하여 이 판단을 밑받침 할 수 있는 理由로 武力의 유지 보충 보급을 생각할 때 攻擊能力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中共의 軍事원조의 약속

이 어떤 內容의 것인지는 몰라도 알려지기로는 約 1個師團의 장비를 公급할 것이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全面戰爭時 北傀가 계속 公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극히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評價는 北傀의 軍事的 위협의 가능성이 全無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 全面戰을 前提로 한 攻擊能力이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點은 비단 순수히 軍事的인 理由에서 뿐만 아니라 먼저 分析한 戰略狀況의 理由 때문에 또한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即 소련은 現在 韓半島에서의 熱戰은 원치 못할 事情이며 中共 또한 最近의 닉슨訪問發表와 國內의 強硬派의 沒落으로 北傀의 戰鬪的인 路綫이 全面的인 熱戰으로까지 번져가는 것을 후원 못할 事情일 뿐 아니라 滿洲地域에서의 소련과의 긴장대립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北傀가 全面戰으로 나온다면 특히 中共·北傀가 昨年 以來 警戒하여 온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오히려 도움은 結果가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兩韓이 가지고 있는 支援源을 따져 볼 때 北傀에 依한 全面戰은 現在로서는 兩韓에게 長期的으로 有利하게 結果될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北傀가 할 수 있는 可能한 挑發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問題다. 이 問題는 美軍部의 판단과 기타 海外의 一般的인 見解에 따른다면 局地戰과 民族解放戰을 混合한 小규모 軍隊單位에 依한 一種의 小規模戰이다. 現在의 軍備나 戰略面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充分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이 판단을 크게 뒷받침 하는 것으로써 극히 최근에 金日成이가 처음으로 國

際情勢狀況의 變動이 있다는 것을 말한 바 있는 것이다. 이것은 林彪의 沒落後의 것으로 中共의 對美強硬政策에 決定的인 變化가 있다는 것을 是認함과 同時に 北傀의 武力的인 強硬路線이 遂行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의 列強의 現狀유지가 이대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엔 北傀는 現狀유지 무드를 파괴하면서 全面的인 攻勢로 나올 可能性이 있다. 그것은 곧 滿·소 국경지역에서 소·中共의 本格的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에 의해 받게 될 決定的인 打撃을 막기 위하여 兩便을 企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中共이 北傀를 후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危險을 除去한다면 現在의 北傀의 強硬路線은 外交政策的으로 孤立的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北傀가 處하고 있는 條件으로 보아 北傀는 소위 平和 무드 即 現狀유지 무드를 깨뜨릴 수 있는 條件은 가지고 있다.

5 . 中共外交의 影響

49年 中共의 政權장악 以來 中共外交目標은 大體로 安全保障에 있었다. 불란서革命이나 러시아革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中共도 全般的으로 敵對的인 世界에 直面되어 왔다. 50年代末頃 부터 60年代末頃까지 中共은 그러한 世界에서 脱出해 나가는데 外交的으로 別로히 成功的인 것이 아니었다. 特히 그것은 中共이라고 하는 体制内部의 独自の인 權力構造의 유지라는 것에 의해 더욱 加重的인 打撃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周辺이 封鎖되는 한편 開發途上諸國에서 영향력이란 것도 별 進展을 보지 못한채 國際的으로 孤立狀態에 놓여 있었다. 文化大革命이 있기 直前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A.A의 機構들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中蘇紛爭은 격화 1路를 거듭하여 68~69년에는 거의 核戰爭에 가까워졌던 상태였고 한편으로는 日本의 잠정적인 위협에 處하고 있었다. 그리고 南部國境地帶에는 越南戰을 中心으로 한 美國의 위협이 있었다. 어떠한 孤立狀態에서 中共이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은 直接的인 對決狀態에 놓여 있던 소련과의 문제였다. 68年の 소련의 체코進攻은 中共에게 소련의 기습공격의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國內的인 混亂을 防止하기 위하여 強硬路線이 必要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一次的인 重大한 國防問題를 놓고 미 소라고 하는 軍事的 超大國과의 對決을 생각해 본다면 實質的인

強硬路線을 追求해 간다는 것은 自滅行爲라고 생각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林彪의 沒落은 어떠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主敵의 規定에 關한 論爭은 이미 文革中에 나타남이 있었다. 그리고 九全大會때의 林彪의 報告書 中에도 「美帝」에 對한 批判은 一페이지가 割愛 되었던 것에 比하여 소련과 中共國境紛爭에 關해서는 5페이지半 以上이 割愛 되었었다.

結果적으로 中共도 兩面의 敵으로 부터 一面의 安全을 追求하기 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곧 武力對決이 아닌 外交的인 方法에 의거 하는 道理밖 에 없었다. 그런데 그 外交의 對象이 決定됨에 따라 두가지 變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문제인데 소련의 「社會帝國主義」전 또는 「美帝國主義」전 間에 그러한 對象과 外交交涉을 한다는 것은 將來의 強硬的인 이데올로기의 調整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데 이 課題를 中共은 戰略問題로 轉化시켜 毛沢東思想에 結付시키는 方法을 취했다.

둘째로 傳統的인 共產主義的 外交는 黨과 黨의 外交라는 方式을 取해 왔는데 이것을 止揚하여 國家對 國家의 外交方式에 새로운 力點을 두어 外交活動의 自由의 幅을 넓혀 온 것이다. 이런 變化를 보건데 昨今の 中共은 兩面의 敵의 一方을 軍事的인 아닌 政治的方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새로운 슬로건 卽 「強國主義」라는 것을 내세우게 됐으며 이로 말미암아 第三世界의 諸國家들의 관심을 얻기에 어느程度 成功한 것이다. 이것이 中共이 UN에 加入하는데 成功하게 된 決定的인 作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UN加入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國境紛爭에서 武力的인 에스카레이션을 抑制해야 한다는 必要(에스카레이션의 予則不可能性 때문에)와 그리고 紛爭의 最終的인 勝利者는 美國이라는 判斷이 또한 뒷받침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中共의 UN加入의 成功은 美國과 蘇聯 兩國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外交的인 成功을 한 셈이다. 그런데 問題는 次後 中共이 어떤方向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 그것이 韓國의 安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것이다.

우선 中共의 外交攻勢의 時期부터 따져 보면 UN加入을 中心으로 國際舞台에서의 本格的인 活動展開를 위한 準備期間이 必要한데 이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판단이 있다. 영국의 견해는 約 半年 걸릴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는 2年, 그리고 미국은 1年으로 보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의 최근의 전쟁은 그러한 인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先手를 노린 結果가 아닌가 한다. 아 물론 우리로서는 1年을 잡는 것이 安全한 計算이 아닌가 한다 이동안은 미 小外交가 主효할 것이다.

万若 다음 1年이 준비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中共이 外交政勢의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하게 될 時機는 72年 UN總會의 때와 맞선다. 따라서 韓國으로서는 明年의 UN總會에서 最大의 試驗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對北僞鬪爭을 생각해 보자
닉슨의 中共訪問의 發表와 함께 越盟과 마찬가지로 北僞도 우리의

態度를 나타낸바 있다. 卽 北傀의 強硬路線에 一種의 타격을 加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이것은 中共. 北傀의 關係가 이미 黨보다는 國家對 國家라는 外交方式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는 것으로 보아도 그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떻든 美. 中共의 접촉은 中共으로 하여금 強硬派의 肅清을 斷行하게 했고 이것은 結果的으로 北傀孤立狀態에 빠트리게 된 것이다.

勿論 中共으로 보아서는 北傀의 이러한 孤立을 방관할 수 있는 立場에는 있지 않다. 그것도 北傀가 전초겨 位置에 있다는 理由뿐 아니라 對日本關係와 아울러 中. 蘇紛爭에 있어서 北傀가 占하는 重要性이 戰略的으로 자못 큰 것이기 때문이다. 反面에 北傀로서도 中共의 外交姿勢의 轉換을 桃戰的으로만 對할 수는 없는 處地이다. 現狀打破的인 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北傀가 의지할 곳은 지금은 微笑外交로 나오고 있지만 本質的인 目的이 現狀打破的인 中共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中共과 北傀는 緊密한 外交계통을 취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이미 UN에서 中共代表의 処女演說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나 現在의 立場으로서는 中共이 北傀의 強硬性을 그대로 밀어줄 수는 없다. 卽 中共은 現在의 平和的인 外交政策에다 北傀를 얹고 나갈 것이다.

北傀로서도 林鈞派의 沒落과 함께 中共의 그러한 政策에 呼吸하지 않을 道理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最近의 金日成의 國際政治的 條件의 變化를 確認한 것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앞으로 北傀는 어떻게 國際적으로 行動할 것인가 ?
이 問題는 中共의 行動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질 것인데 來年 봄
까지는 中共은 거의 모든 UN機構에 加入할 것으로 보인다 . 그
然後에 中共의 힘이 미치는 限 東歐諸國까지 包含하여 모든 國家
에 對하여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取할 것이다 . 이에 따라 北傀도
國際적으로 平和攻勢를 取하여 南韓에 타격을 加하려 할 것이다
달리 表現하면 北傀는 中共의 平和攻勢에 따라 特別히 才三勢力인
諸國에 對하여 自己의 이미지를 轉換시키면서 한편 日本에 對하여
中共과 함께 「軍國主義」를 강력한 政治的攻擊目標로 하여 南韓을
外交적으로 孤立시키려 들 것이다 .

이러한 政策이 일단 成功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北傀는 政治戰爭
的인 性格을 갖는 코만도作戰을 감행할 可能性이 있다 . 이러한
危險은 적어도 74年頃까지 지속 존속하리라 보여진다 .

6. 美日政策의 趨移

美國과 日本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의 最大課題는 中共問題였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美國이 考慮한 것은 越南戰의 教訓이었다. 이 戰爭에서 美國은 힘의 限界를 인식하고 世界의 경찰로서의 그 役割에 修正을 加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中共과의 關係改善이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目的은 아시아의 모든 緊張要因이 直接間接으로 中共과 關係가 있다는 現實的인 판단 아래 中共과 戰爭을 피하는 方法으로 極東戰略을 유지해 나가자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美國의 經濟事情을 主理由로 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부담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美國은 두가지 條件을 行動의 限界로 設定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아시아諸國과의 變務條約關係를 考慮하여 國府와의 相互防衛條約을 消極的으로나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소의 共存體制를 해치지 않는 限度內에서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피한다는 것이다. (이 둘째번의 條件은 逆으로 中共이 中·蘇戰爭의 경우 美國이 소련側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希望하는 것과 어느 程度 一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닉슨·佐藤」의 共同聲明이나 「팜·독트린」에 依해 表現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表現되어 있는 美國의 정책은 大局的으로 보아 基

本戰略에는 變化가 없다 하겠으나 封鎖로 부터 現狀유지 政策으로의 移行을 爲한 程度의 戰術的인 調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그 結果의 하나가 美國의 海外公約의 全般的인 再檢討로 부터 始作하는 駐韓美軍의 撤去였던 것이다.

이 美軍의 撤去는 韓國에서 유엔의 名分을 축소시켜 韓美關係를 實質적으로 兩國關係란 틀 속으로 묶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撤去가 美國과 소련의 韓半島에 關한 어떤 幕시적 合意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韓美關係의 순수한 兩國關係으로의 移行은 狀況의 變動에 따라 政策的인 變動이 即刻적으로 韓國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點을 감안한다면 韓國外交에 있어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美國과의 戰略概念의 調整이다. 이를 爲해 생각되어야 할 것은 美國과 中共이 앞으로 接觸을 계속 하겠지만 당장에 어떤 진정한 和解가 이룩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中.蘇紛爭의 틈에 끼인 北傀가 가지고 있는 桃擧 폭발능력 같은 것을 南韓은 現在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友邦과의 外交的 協商의 強化가 南韓에게는 가장 切實한 問題라는 것이다.

이 問題는 곧 韓國과 日本과의 關係로 延長되는 性質의 것이다. 日本은 스위스 以東에서의 英國軍의 撤去와 73年頃까지 約 十萬 程度 밖에 아시아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美軍의 撤去에 따라 潜在的으로 커다란 役割을 다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앞에 두고 日本自身の 防衛는 美·日安保條約에 依해 보완 되고 있는데 中共의 매두와 소련의 對中共 봉쇄政策에 따라 日本은 그 自身の 防衛力의 增強을 위해 4次防衛計劃과 같이 大대의인 政策을 밀고 나갈 것이다.

中共은 現在의 아시아諸國의 對日感情을 利用하여 美·日安保條約의 폐기를 도모하여 軍事的인 大國에로의 發展을 阻止하려는 努力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닉슨·佐藤의 共同聲明이 맹렬한 공격대상인 되었다.

經濟적으로 보아 日本은 中共에 比할 수 없는 大國이기는 하지만 外交적으로는 美國의 現狀유지 政策의 일환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行動의 自由에는 限界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미국이 左右할 수 없는 重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곧 國際經濟力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日本이 國際政治世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主要因인데 將次 아시아地域에서 그 영향력은 점차 커가리라 예상된다. 現在의 時点에서 보아도 日本의 對中共輸出은 日本의 輸出總額의 平均 3.2% 以上을 넘지 못했지만 中共에게는 그것이 輸入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文革以後 한국과 台灣을 目標로 한 周四原則이 發表된 以後에도 中共의 對日輸入은 오히려 급격히 上昇했다. 이것은 주로 中共의 必要에 따라 上昇한 것이지만 日本의 外交的 成果에 基因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中共의 機械類의 對日需要는 앞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中共과 日本의 關係가 어떤 正常的인 外交次元에까지 오르게 되면 日本產品의 需

要는 急激히 上昇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周四原則의 意味를 吟味해 볼만하다. 이 原則을 꺼꾸로 뒤집어 말하면 極東에서의 日本進出의 主된 要因은 곧 經濟的이라는 것의 斷的인 表現이 그것이고 다음에 韓國 台灣 日本이라고 하는 中共周邊의 三國은 日本의 經濟力에 依해 有機的인 關係로 指向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關係는 軍事的인 保護를 招來할 것이라는 것이 內容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內容을 前提로 하여 中共은 日本内部의 平和무드를 더욱더 刺戟하여 保守勢力의 執權을 不可能하게 하므로써 極東地域에서의 日本의 國際的인 영향력을 排除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具體的으로 美軍이 台灣과 韓國에서 減少됨에 따라 日本이 그 軍事代役을 맡을 可能性이 있다는 판단아래 우선 經濟的인 聯關을 斷絶시켜 그 可能性을 除去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對해 日本에게도 台灣 그리고 特히 韓國은 그 防衛에 重大한 戰略的 意味를 갖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中共과 어떠한 接近을 通해서 理解에 到達하려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日本의 防衛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一方 他方으로는 軍事的인 問題가 배제될 수 있는 經濟關係를 極東地域에서 계속 유지 확장해 가려고 할 것이다.

對中共 견제策의 하나로 日本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소련과 어떠한 關係를 이룩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現在 소련의 對中共政策의 崩解적인 의도와도 반드시 不調和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關係의 改善에는 北方領土에 關한 問題가 先行되어 解決되어야 하는

데 소련은 어디까지나 領土의 현상유지를 條件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韓半島의 位置가 列強들의 流動的인
動態 속에서 점점 獨立的인 戰略地域으로서의 性格을 지녀가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列強들의 勢力關係가 流動
的이면 流動的일수록 더욱 더해 갈 것이다.

7 . 結 語

流動性과 独立的 戰略地域이란 二要素는 函數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함수관계는 곧 韓半島의 客觀的인 國際政治的 狀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外交目的 即 安保와 統一이란 것에 맞추어 具體的인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다.

狀況과 目的에 따른 主體的인 外交行動의 方式 또는 戰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 그에 대한 構想으로서 大略的인 것만 들면

① 中共이 加入된 새로운 UN의 새로운 方式에 依한 利用可能性의 모색

② 北傀와의 커뮤니케이션 通路 유지의 必要

③ 54年 제네바會議과 같은 國際會議 召集의 可能性 모색

④ 軍事的인 均衡을 유지하면서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펼 수 있는 方向의 設定

⑤ 強大國들의 均衡 유지에 努力하면서 柯만도 作戰의 분쇄를 위한 態勢整備等을 들 수 있다.

要 約

本論文은 70年代 列強들의 對韓政策과 韓國 安保統一外交의 方向을 主題로 다룬 것이다.

才一章에서 우선 70年代의 狀況을 概述하고 問題로서 ① 明確한 狀況의 判斷 ② 現實的인 戰略概念의 整備 ③ 相對的으로 獨立的인 外交政策의 樹立等으로 보았다.

이 問題들의 檢討를 위하여 才二章에서 冷戰期의 連續性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韓國의 現在 外交政策이 빛는 바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그것은 곧 U.N과 對美關係를 主軸으로 하는 韓國의 外交가 새로운 調整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戰略概念上 커다란 차질이 招來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

要請되는 調整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才三章에서는 70年代의 새로운 狀況에서 韓半島가 列強에게 어떠한 戰略的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 分析中에서 韓半島의 情勢를 決定하는 것은 비단 四大陸 뿐아니라 北傀가 하나의 獨立變數的인 要素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才四章에서는 그러한 北傀의 軍事力을 평가하는 一方 그것이 갖는 政治的인 動態的次元이 어떤 것인가를 分析하고 위협의 性格을 檢討하였다.

여기에서 中·蘇의 國境紛爭과 北傀의 軍事外交政策의 연관성을 밝히고 南韓이 對處하여야 할 主危脅은 北傀의 作戰임을 강조하였다

이 코만도作戰은 當分間 中共의 平和攻勢에 結合되어 北傀도 國際的으로는 強硬路線의 표방을 止揚하고 大大的인 平和宣伝攻勢를 펴리라고 예상된다. 이런 點이 才五章에서 中共外交의 영향이란 것으로 다루어졌다.

才六章에서 美日政策의 趨移를 考察하여 安保外交의 戰術的 側面의 再調整 問題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即 美國의 對極東政策의 大戰略에는 아직 基本的인 變更이 加해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具體的인 戰術에 있어서 日本의 役割을 增大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主內容이 經濟를 中心으로 한 것이다. 美.日의 이러한 政策趨移에 韓國으로서 對應해야 할 點들을 따라서 밝히고자 했다.

結論으로서 流動的인 力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狀況을 設定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安保統一外交의 方向을 爲한 다섯가지 原則的인 提案을 제시했다.

3. 70年代，韩国对内的统一与件造成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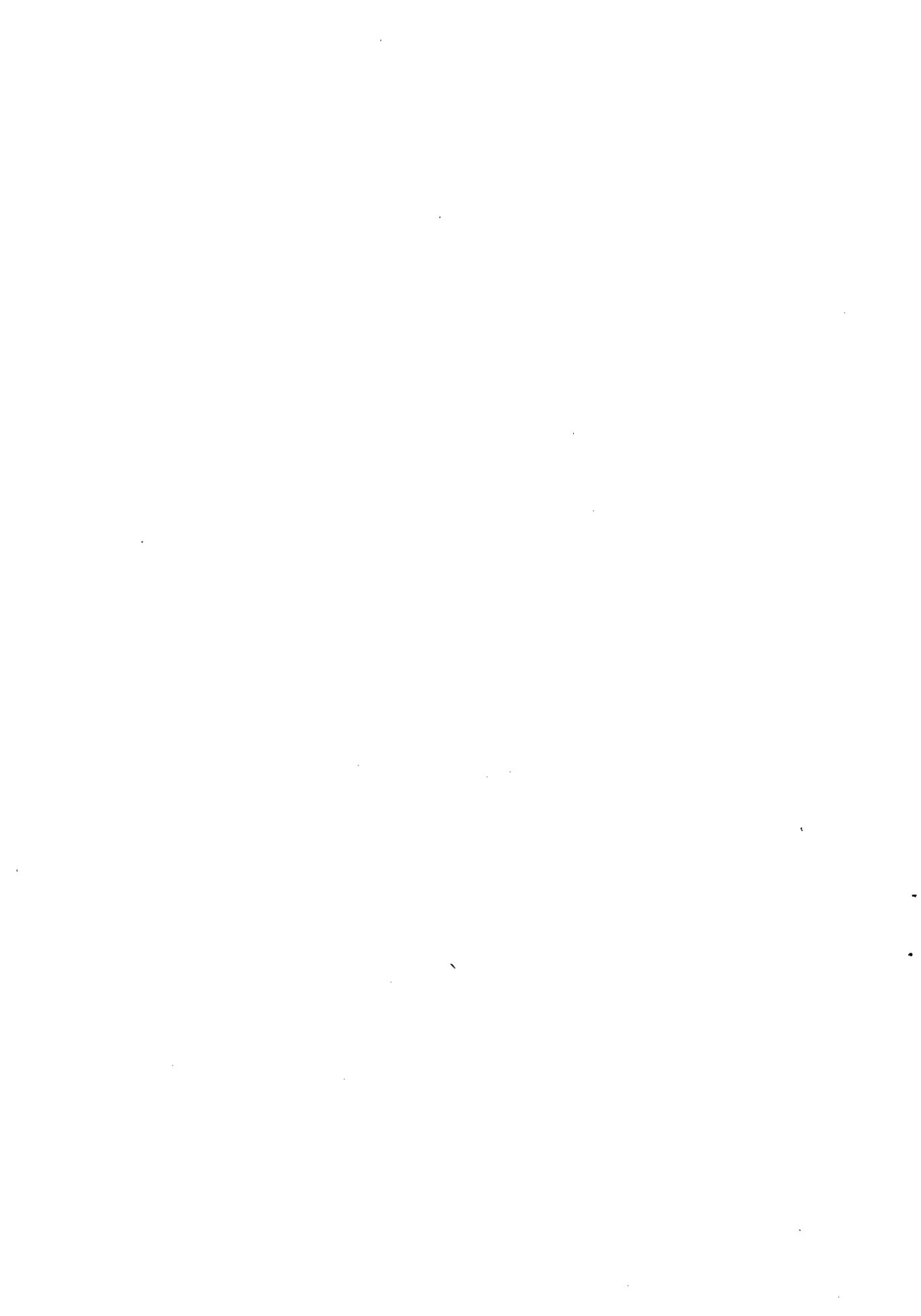
鄭 仁 沢

格式如左：我部一錄：唯內校：長國聯，升平 07 .8.19.17 .e

秀 司 樂 13

目 次

1. 序 論	69
2. 歷代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에 對한 再考	73
3. 對內的統一與件 造成을 爲한 問題點과 그 對策	83
가. 政治面	83
(1) 代議民主主義의 確立	83
(2)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의 改編	84
나. 社會面	86
(1) 信用社會의 實現	86
(2) 農村과 都市의 隔差	87
(3) 世代間의 斷切	88
다. 文化面	91
(1) 이데오로기의 「갭」문제	91
(2) 言語障壁	92
(3) 非政治的接近通路의 擴大	92
(4) 第三國人에 對한 觀光許容	94
(5) 非戰略物資의 交換可能性	95
(6) 反共教育의 改編	96
(7) 스포츠의 交流	97
라. 南北赤十字會談의 問題點	98
4. 結 論	100



1. 序

論

統一의 意義 : 그 必然성과 基本要件, 民族意識의 類型을 決定하는 歷史的 環境에 關해, 行爲체계 (Action System)의 成立을 爲한 文化思潮 (Cultural Climates)의 研究를 試圖하는 學者들이 흔히 있다.

韓國은 政治的 질곡이자 歷史的 空白期間인 36年을 거쳐 解放을 맞이했다. 戰爭의 終結過程은 日本軍의 武裝解除名分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美蘇의 軍事進駐를 爲한 境界홍정을 副産하였고, 半島兩斷의 非理는 25年의 歲月을 軍事的 競爭에 바쳐오게 하였다.

그러나, 統一의 可能性에 對한 一般의 信賴는 事實, 物理的인 要因에 큰 比重을 두고 沮喪되어 왔다.

公認된 名分을 업고 모처럼 南進政策의 발판을 굳히려던 蘇聯軍의 策動은 結局 金日成 共產政權에 對한 支援政策의 形式으로 表面化 되었다. 南北韓의 政治·文化的인 異質化現象은 祖國統一의 要件形成에 本質적으로 逆行하는 現象이다.

地政學的인 理由를 考慮할 때, 韓半島는 外勢의 影響圈을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古朝鮮, 三國, 高麗時代가 그랬으며 李朝時代도 例外는 아니었다.

不斷히 밀려오는 外勢의 侵略에 對한 自体防衛力의 未洽에는 많은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

19世紀 이후 極東地帶를 둘러싼 列強勢力의 다툼은 날로 더해 왔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특히 美蘇의 角逐過程에서 戰爭概念의

多様な 変化를 가져왔다. 지금은 바로 中共勢力的 膨脹과 日本의 潜在力成長으로 因한 均衡要因의 새로운 要請이 論議되고 있어 韓半島의 安危는 좀더 深刻한 단계에 이르렀다.

韓民族은 그러나 生活方式, 精神文化的背景, 歷史的固有性을 基礎로 하여, 統一이 宿命이요 至上課業이라는데 善意의 異論이 있을 수 없다.

「統一의 保留」 또는 「分斷狀態의 持續」이란 「地政學的인 不調和」를 더 激化시키는, 말하자면, 「歷史的不倫」의 連續을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의 必然性을 말하는 歷史의 價值線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變遷의 經路를 再論할 必要없이, 列強勢力的 版圖擴張戰略으로 點綴되어 온 前哨基地에는, 惡의 雨傘 “밀리터리·엠브렐러” 마저 노치기를 슬퍼하게 하는 「不安의 暴風」이 밀려오고 있다. 政治·經濟·社會·文化等 모든 分野에서 固有의 體制가 喪失되고 기껏 他律에 依해 強要당한 狀況으로 하여금 「生活」아닌 「生存」에 滿足하도록 韓民族을 制壓하고 있는 것은 戰爭의 무서운 破壞力 그것이다.

가까운 地點으로 눈을 돌려, 「이즘」을 달리하는 自由大韓民國政府와 傀儡政權이 南北에서 對峙하게 되자 微妙한 國際事情의 介入을 許容하며 安保戰略上 準拠基準의 새로운 探索에 腐心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北傀는 蘇聯과 中共의 등에 업혀 威脅의 人存在로 成長해 오면서 戰爭目的의 人間消費幼戲를 反復해 왔다.

이와같은 混總속에서 經濟力의 變形動員能力을 備蓄한 日本은 政治技術의 形式으로 北僞에 秋波를 던지고 있는 바, 昨今の 韓半島를 둘러싼 政治狀況에 새로운 操作效果를 示威하고 있다.

政經分離를 내세워 北僞에 프랜트輸出을 試圖하고, 日本輸出銀行이 北僞와 去來를 開放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觀測者들에게 不快한 刺戟을 던져주고 있다.

日本은 또한, 中共의 이른바 周四原則을 遵守한다고 하며, 이미 韓國과 借款契約을 締結한 商社들이 韓國과의 去來를 中斷하는 事例等 그 政策의 二重的인 性格을 如實히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北僞는 祖國統一이라는 美名下에 「全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現代化」 「全國의 要塞化」와 같은 一連의 口號를 내걸고 호시탐탐 武力統一의 機會를 노리고 있으며 北僞의 軍事動向은 그 危險度의 測定을 爲한 尺度選定에 困難을 느끼게 하고 있다.

分斷狀態下的 暫定的인 休戰狀態 그리고 冷戰緩和, 東西解氷무드에 便乘한 現狀維持政策等은 安保政策의 方案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큰 試線의 회피를 保障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祖國의 統一을 韓國民의 普遍善(General Good)이라고 볼 때, 安保理論의 一次的目標은 이 普遍善의 構乘에 있고 現狀安保는 그 下位目標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統一政策의 基本要件이 民主主義라는데 우리는 同意하고 있음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複數의 또한 最善의 統一方法論이 設定된다 해도 일단 統一이

이루어졌다고 假想하여 國家理念이 自由의 基本秩序를 否定하는 反民主主義體制위에 成立한다면, 自由民主主義의 憲政秩序를, 이것은 完全히 포기하는 論理로 歸納되고 만다. 여기에 「統一의 假想」과 「統一政策」과의 紐帶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장기적인 視界와 難關이 先行되더라도 政策的基盤을 民主主義에 둔 統一方案에 對해 韓民族은 意見의 一致 또는 意見의 統合이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民主統一方式은 한편 強力한 民族主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民族主義는 가장 含蓄性이 많은 統一理念이면서도 普遍主義와의 觀念的衝突로 因해 社會적으로 高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韓國民의 一般的인 「컨센서스」를 환기시키고 傳統的固有性을 中心으로 團結을 誘導하기 위한 象徵的인 理念形態로서 가장 現實的인 觀念이라할 것이다.

土着民族主義의 創造的인 理論開發이 先決問題로 登場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民族主義에 依한 統一基盤의 造成이야말로 永遠하고 堅實한 統一目標의 實체에 接近하는 길이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民族主義의 理念的基礎를 健全한 民族精神에 두기 위하여 이른바 精神革命이 隨伴해야할 것인즉, 爭大, 利己, 分派 保守主義에 對한 改革的矯正이 前提되고 있다.

2. 歴代 韓国政府의 統一方案에 對한 再考

韓半島의 分斷은 韓民族의 意思와는 相反되는 國際政治의 力学關係의 産物이라는 點에 疑問이 없다. 그동안 이데오로기의 相衝으로 南北韓은 政治・經濟・社會・文化・思想等 모든 分野에서 異質化現象을 빚었고 그 深度가 加增되고 있다는데 問題가 있다.

統一問題에 關해 歴代 韓国政府는 여러가지 制約條件에도 不拘하고 問題解決을 爲해 努力했다는 것이 共通의 現象이었으나 그 接近方案의 具體的인 樣相間에는 많은 差異點이 存在해 왔다.

특히 그 方案은 統一問題가 점차 複雜性을 띄게 되고 國際政治의 影響으로 因한 不可避한 限界의 成立과 自体矛盾을 낳고 말았다.

여기서 韓国歴代政府의 統一方案을 再檢討하고 그 妥當性과 合理性을 批判하면서 諸政策模型의 可變的인 要素를 먼저 檢出하여야 하겠다.

① 政府樹立~4.19 ② 4.19~5.16 ③ 5.16 以後, 우선 이러한 時期區分이 可能할 것이다.

最初로 提示된 方案은 1948年 政府樹立과 同時에 發表된 것으로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임을 前提로 ① 國土統一은 選舉가 保留된 北傀地域에의 早速한 選舉實施로 可能한 것이며 ② 이것이 不可能할 境遇* 大韓民國은 武力으로 北韓에 對한 主權을 回復할 수 있다는 內容을 갖고 있다.

平和的인 方法과 그것이 不可能할 경우 武力에 依한 統一도 不

·辭하겠다는 二元的方法論은 60年 4月革命에 이르기까지 多少間의 修正이 加해졌으나 原則은 固守되어 왔었다.

먼저 平和統一方案인 北韓만의 選舉論은 53年 7月 休戰成立으로 「全國總選舉案」으로 修正되었고 그後 休戰協定の 規定에 따라 「제네바」會談에서 再確認되었다.

「제네바會談에서 確認된 事例은 U N 밖의 國際會議에서 論議된 唯一한 例外로서의 意義가 있으나 그후 「제네바」會談의 決裂로 再復歸했으며 韓國政府의 平和的 統一方案은 「제네바」會談의 原則이 그대로 傳承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平和統一方案을 懷疑하고 있던 自由黨政府가 實踐的統一方案으로 強調해온 武力統一方案은 51年 休戰成立의 雰圍氣가 成熟하면서 부터였다.

기필코 統一을 武力으로라도 達成시켜 보겠다는 韓國政府의 態度는 「제네바」會談에도 非協助的이었고 美國政府에 對해서도 不信을 當해온것이 事實이었다.

그후 51年 選擇公約에까지 武力統一論을 내세운 自由黨政府는 世界輿論에 好戰的인 印象을 주었고 事實上 6.25를 通한 經驗에 비추어 그 實現性이 稀薄한 方案으로 評價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4.19 革命으로 政權을 引受한 民主黨政府는 武力統一論의 廢棄를 主張하고 統一을 爲한 自體의 整備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61年 4月 12日 U N政治委員會가 南北韓 條件附同時招請案을 可決하자 「U N의 決議라도 우리에게 不利하면 受諾하지 않는

다」는 伸縮性있는 對UN 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決議案이 UN에서 通過되자 當時 鄭一亨外務長官은 UN會員國의 增加에 따른 容共的인 決議에 對処하기 위해 「UN決議遵守」를 UN決議 尊重」으로 緩和시킨다는 政府見解를 밝혔다.

한편 民主黨政府는 對中立外交에도 関心을 들리기 始作했으나 그 政權의 虛弱性과 短命으로 因하여 具體的이며 實踐的인 方案이나 政策은 實施하지도 못한채 5.16을 맞은 것이다.

5.16에 依한 革命政府는 統一問題에 對한 優先措処로 政局混亂에 따른 國論의 一致를 圖謀하는데 傾注했고 이러한 基本態度는 民政移讓後 共和黨政府에도 그대로 繼承되었다.

그러나 共和黨政府에서도 亦是 UN監視下의 自由總選舉라는 原則論을 固守해 오고 있으며 몇가지의 特殊한 內容을 考慮하면

① 民族自決原則(63年12月3日) ② 對UN戰略等이 問題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民族自決原則이란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南北韓 土着人民數에 比例하는 代表의 選出을」말하며 이는 北傀側의 駐韓 UN軍 撤收와 外國干涉의 排除라는 民族自決原則과는 다른 것이다.

共和黨政府는 또 UN戰略에 있어 68年 23次 UN總會때부터 「自動上程方式」을 「裁量上程方式」으로 바꾸어 每年 UN總會에의 韓國問題上程을 止揚하고 韓國側의 必要에 따라 임의로 上程하는 方式을 採択했다.

이와같은 對UN戰略變更은 60年以後 阿亞中立國의 大量 UN加入과 UN內部的 環境變化에 따른 韓國問題의 位置동요에 起因한다.

裁量上程方式은 그 成果를 두고 볼 問題이나 如何든 劃期的인 것임이 分明하다.

共和黨政府는 實踐的인 面에서 勝共統一論을 爲한 自体力量의 培養에 重點을 두고 있어 從來의 統一方案과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政府는 外交政策樹立에 있어서도 「할슈타인」原則의 融通性있는 適用과 独自の인 立場의 維持를 繼續하고 있다.

또 國土統一院을 發足시켜 統一問題를 專担케하여 組織的이고 具體的인 統一研究에의 길을 터 놓았다.

그러면 이제 歷代政府가 取한 統一方案의 評價와 改善 및 補完策을 檢討해 보자.

事實 UN 監視下의 選舉案은 韓國戰爭 參戰國의 共同提案形式을 別린 것인데 前述한 바와 같이 UN會員國의 增加에 따른 相對的인 美蔭影響力의 減少라는 UN의 質的變化와 62年 古巴事態가 東西妥協, 冷戰緩和라는 形態로 急進展됨에 따라 UN의 韓國問題도 그 影響圈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새 局面에 接하게 된 韓國問題의 位置는 71年 中共의 UN加入으로 더욱 위태롭게 되었고 이에 따라 分斷國의 加入이란 問題의 대두로 南北韓의 同時加入도 現實問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政府는 UN에 依한 統一方案自体에 對한 根本的인 再檢討의 必要에 부닥쳐 왔다.

韓國問題의 UN에서의 位置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으나 外交的인 效果를 爲해서도 積極的인 姿勢로 UN動向을 注視하고 活動을

展開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國際機構 即 U N의 側面을 떠난 自体内的 武力統一論과 勝共統一論을 生覺해 보자.

自由黨政府의 實質的인 統一方案이었던 武力統一論은 철호의 찬스였던 韓國戰爭때도 強大國 및 U N의 現象維持政策에 依한 休戰協定으로 別다른 效果를 거두지 못했다. 더우기 武力統一이란 自体 攻擧能力이 不足했던 韓國으로서는 美國援助없이는 想像할 수 없는 것이었고 非現實的인 空論에 그쳐 오러려 北傀儡에 平和統一攻勢의 契機를 주기까지 했다.

武力方式은 戰爭을 치뤄야 하므로 韓國民이 이를 혐오하고 있어 國力の 統一에 失敗했었으며 國際的으로는 韓國의 好戰性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러한 自由黨政府의 統一論에 楔기를 박은 것이 5.16 以後 共和黨政府의 勝共統一論이다.

最終的인 方案인 武力論과는 달리 統一을 위한 條件의 成熟이 先行되어야 한다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韓國政府는 兩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修正했고 自主國防의 確立에 努力을 傾注해 왔다.

韓國政府의 努力은 對美一辺到의 外交를 脫皮하여 中立國外交, 韓日接近 ASPAC 등을 통한 아시아 太平洋地域 우방국가와의 外交關係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다.

勝共統一論이 長期的이며 消極的이고도 迂廻的인 接近方式이긴 하나 自体的 準備強化를 내세워 보다 能動的인 立場에서 統一問題를

다루려고 한 態度는 從來의 統一論과는 달리 進一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勝共統一論도 實踐過程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 問題點이란 勝共統一論自體의 限界性和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들로서 ① 經濟成長에 따른 社會的不調和의 深化現象으로서 이는 內部分裂을 일으켜 成員間의 聯帶性を 弱화시키고 敵에 對한 抵抗力을 鈍化시키며 ② 「닉슨독트린」에 依한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變化로 自主國防態勢가 完全히 갖추어 있지 않다는 國防上的 「디렘마」가 드러나 있다.

이상의 諸問題에 對해 多角的인 方法을 통한 解決이 뒤따르지 않는 限 勝共統一論 또한 重大한 試練을 免치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提示되는 것은 韓國政府의 外交政策에 依한 接近方法이며 이는 北韓의 國際的孤立化에 比重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그 理由는 統一의 搜索이 優先的으로 北傀의 南侵企圖를 좌절시키고 韓國側의 統一方案을 收容할 수 있는 北韓의 內部變動을 促進시켜야 하므로 蘇聯과 中共으로 부터 孤立시키는 方法이 考慮될 수 있으나 現狀況下에서는 至難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韓日關係의 變化가 問題視되고 있으나 日本은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임을 認定하면서도 政經分離 乃至 實利外交를 내세워 事實上 北傀를 받아 드려 「두개의 韓國觀」을 助長하고 있다.

對日觀, 對日外交政策上 開拓소요分野는 너무나 많다.

또 亞阿國諸國의 民族自決, 非同盟, 民族分離 및 植民地政策을 反對하는 立場을 考慮하면 앞으로 軍事活動의 範圍과 外交上의 效果分析은 有機的으로 試圖되어야 할 것인바, 派越韓國軍의 撤収가 外交上의 障礙要素除去를 위해 큰 意義를 가진 것으로 解釈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勝共統一論이 갖는 限界性은 統一의 方法과 時期에 關한 韓國政府의 態度에서 찾을 수 있다.

韓國政府가 統一의 方法과 時期를 設定함에 있어서 共通的인 現象은, 統一을 위한 客觀的與件의 變化를 基本過程으로 삼고 있다는 事實이며 이것이 統一의 制約條件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韓國政府는 「金日成體制」가 「새로운 民族勢力」으로 代替되는 北韓内部의 權力構造變化와 韓國統一에 密接한 利害關係가 있는 「國際情勢의 變動」이, 統一의 主觀的與件인 「自主的基盤의 確立과 同時에 부합될 때를 그 時期로 보고 이를 大體로 70年代 後半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分析이 妥當하다면, 結局 勝共統一이란 上述한 「客觀的 與件의 성숙」이 前提되어야 하므로 韓國政府의 能力的 作用이 與件성숙에 어느程度의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가에 그 實効性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事實 歷代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을 살펴 본 바와 같이 大體的으로 守勢的立場으로 歸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統一方案의 攻勢的立場이 미치는 心理的影響도 감안하고 北傀에 對하여 보다 說得力 있는 方案을 原則이 許容하는 限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方法으로 韓國政府는 從來의 法的 政治의 次元으로부터 民族的

인 次元으로 統一論議의 方向을 轉換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方法의 非現實性을 들 수 있을것 같다.

이 現象은 國論의 統一을 不可能하게 하고 나아가 統一問題에 對한 國民의 意志를 沮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그리고 方案의 融通性欠如가 指摘되어야할 것 같다. 그동안 客觀的인 與件에 따른 政策可變의 余地를 남겨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外的變化에 신속하게 對應할 수 있도록 措勵되어야할 것이다.

또하나의 看過할 수 없는 事項은 統一方案의 自主性問題와 統一政策에 關한 國民與論의 集結問題이다.

事實상 지금까지 提示된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은 戰後 國際政治를 主導하는 強大國들의 意思를 爲主로 하고 民族의 意思와는 背馳되는 境遇도 있었다. 또한 與論과는 遊離되어 貧弱한 支持度를 보여주지나 않았는지 의구스럽다.

솔로건으로서의 機能에 그치지 않고 說得力과 實現性이 있어야 함을 注意하여 從來의 傾向이 內包하고 있는 모순을 克服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妥當性 있는 方案으로 國民의 認識을 불러 일으켜 그 方案에 對한 強烈한 慾求와 意志力を 發動시켜야할 것이다.

그동안의 統一論은 그 展開過程이 國民的次元에서 開放되지 못하고 繼續 「타부」시 되어 왔다. 그리하여 國民輿論을 統一方案樹立을 爲해 反映시킨적이 거의 없었다.

國民의 意思發表에 對한 制限과 規制要因을 漸進的으로 除去하여 名實相付한 方策으로 確立해야할 것이다.

歴代政權이 共產主義觀을 無分別하게 취급하여 國民들로 하여금 그 性格, 體制에 對한 理論的背景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곧 理論的武裝의 貧困을 意味하여 對國民說得에 充實하지 못한 所以라고 보여진다.

個人的 創意를 尊重하는 自由主義의 秩序에 對한 理論조차 널리 普及하지 못한 것도 事實이지만 世界革命을 爲해 人間의 位置를 轉落시킨 共產主義의 歴史的 背景, 本質等を 體系있게 國民에게 소개할 機會를 確保해야할 것이다.

現狀의 延長위에 統一의 成立을 假定한다 해도 思想的基盤이 確固하지 못한限 分斷以上の 政治・經濟・社會的混亂이 야기될 우려도 全然 없지 않다.

政策이란 時間과 場所에 따라 一般狀況에 對해 融通性을 가지고 樹立適用되어야 한다.

韓國이 UN을 통해 誕生했고 그 決議에 따라 韓國戰參戰 및 休戰으로 狀況이 發展되었지만 이제 美蘇의 兩極時代가 終언을 告하고 中共의 새로운 登場에 따른 三極化 乃至 多極化時代로 접어든 現存에 있어서는 對UN外交政策을 再考해야할 것이다.

그 一環으로 韓國政府는 「할슈타인」原則의 融通性있는 適用과 中立國外交의 積極化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昨今 金溶植外務長官은 11月22日 國會預算委証言에서 「對共產國 強化策」을 模索하고 나아가 北傀에 武力支援을 提供하는 國家라도 挑發을 抑制하면 非適性國이라고 하는 政府의 態度를 밝혀 非敵性國의 範圍를 넓혔다.

政府의 이와 같은 大胆한 外交戰略은 北傀의 外交攻勢를 制壓할 수 있는 劃期的인 政策의 發展이라 볼 수 있으며 極 鼓舞的인 일로 評價될 수 있겠다.

이러한 外交戰略의 變更에는 언제나 自体의 充分한 實力培養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对内的統一与件造成을 爲한 分野別 問題点과 그对策

只今까지 記述해 온 統一方案問題는 統一을 爲한 政治體制, 그 方法論等 基本論의 大前提가 되는 政策的 基盤과, UN에서의 南北韓問題에 関한 政策内容이 主된 것이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大前提아래서, 南北韓이 共히 統一을 至上課業으로 내세우는 狀況을 基礎로, 相互間의 共通分母를 찾고 最大公約數를 얻을 수 있는 細部的이고도 具體的인 問題에의 接近可能性과 方法論을 다루어 보려 한다.

가. 政治面

여기서는 北國의 政治體制를 論外로 하고 内國의인 政治様相을 把握하여 問題의 週邊에 接近코자 한다.

(1) 代議民主主義의 確立

代議民主政治가 實施되어 온지도 벌써 4半世紀가 지났다. 그러나 代議民主制의 原則에 依해 採択된 方式으로 代表者가 選出되고, 政府體制가 完成되었으나 相當한 期間을 政治不在狀態로 끌어온 것이 事實이다.

国会에서의 与党的 橫暴와 野党的 過激한 反撥이 議會政治史를 繼續, 장식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고질화된 不正選舉, 自党的 政權延長을 爲한 改憲波動, 政治道義의 腐敗가 政治의 内面을 決定지웠다.

이러한 狀況이 深化되면 될수록 國民의 政治에 對한 無觀心과

협오는 더해가고 政治體制의 機能弱화 현상이 현저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약간 注意를 要하는 것은 情報政治에 関한 一般國民의 認識과 批判問題라 하겠다. 論理過程에 觀念的으로 当然히 參與하고 있는 輿論과 批判을 再現시키지 않고라도 現段階에 있어서는 中央情報部의 「이미지」를 一新시키기 爲한 일련의 機能轉換措置가 緊迫하게 要求되고 있다.

諸般問題解決의 關鍵이 되는 것은 政治的 安定이다.

自由民主主義의 順列은, 社会的安定, 經濟秩序, 文化暢達間의 配慮된 位置에서 發見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 統一方案의 政策的伸縮性的 保障에 앞서 信賴할만한 政治體制의 確立이 先決되지 않으면 안된다.

分斷現象은 南北對峙의 一次的關係에 相應하여 國際政治의 二次的 關係를 意味하는 神秘의 틀속에서 섭생하고 있다. 원형은 美蘇, 그 變形은 최근 中共의 登場으로 微妙해진 勢力版圖라 할 수 있지만 주로 그 軍事的均衡의 틀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処하기 爲한 措処는 統合的인 政策의 調和있는 實現을 通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2)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의 改竊

南北分斷, 그것도 休戰狀態下에서, 어쩌면 準戰時以上の 狀況속에서, 北傀의 끊임없는 大小挑發行爲로 因해 韓國이 當面하고 있는 安保上の 必要에 依해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의 重要性은 누구나 잘 理解하고 있다.

北傀의 武裝挑発뿐만 아니라, 組織的인 間諜網을 통한 間接侵略活動은 악랄하기가 그 極에 達한 요즘, 特히 이들 法의 適用은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다른데 있다.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을 廣義로 解釋하여 適用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各條項의 妥當性에 관한 疑問의 餘地를 그대로 包含하고 있다는 것이 一般人的 公론임에도 不拘하고 그 修正措置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이다.

國基와 安保要因을 擘치지 않는 범위內에서는 統一에 關해 自由로운 論議가 許容되어야 한다.

言論機關은 報道問題로, 學者들은 發表論文이나 研究活動으로, 또 學生들은 세미나나 討論過程에서 關係機關의 注意를 받거나 運行되는 事例를 자주 接해 왔다. 研究와 討論의 制約이 國家發展에 미치는 影響을 賢明하게 測定할 수 있다면 「장려와 制約」 사이에 計算된 均衡關係가 必要할 것이다.

法適用의 限界가 모호하다는 것은 法適用上의 過誤를 범할 可能性이 많다는 말이 된다.

最近 東西解氷의 무드에 따른 外交政策의 一環으로 政府가 試圖하고 있는 非敵性國家와의 接觸擴大에도 法의 改正 補完問題가 수반될 것이 바, 充分한 研究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革新政党的 活動을 根本적으로 保護 또는 規制하기 爲한 法의 改正도 따라서 問題視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70년대 後半期에는 統一論議가 自由롭게 展開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關係法을 改編하여 기반造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社会面

社会는 人間으로 构成되어 있는 集團이다. 構成員間의 円滑한 人間關係形成이 심각한 的의를 갖기 始作한 것은 그 組織이 複雜해지면서 부터였다.

統一目標앞에서 勿論 對外情勢의 形成要因도 重要하지만 内部構成員間의 相互作用에 關한 理解와 方便이야 말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韓國社会의 内部矛盾을 克服하는 길은 곧 目標接近의 通路를 開拓하는 길이 될 것이다.

消費性向이 높아가고 金錢萬能主義가 만연하고 있다. 青年들의 社會主義가 그들의 將來와 社会에 어떻게 推移될가를 念慮하지 않을 수 없으며 交通通信 기타 大衆媒介機能의 發達에 따른 慾求上昇, 世代間의 價值觀 및 倫理的隔差, 人口의 膨脹과 都市 農村, 貧富間의 成層 특히 指導者와 國民間의 尤리와 不信風潮 等の 社會惡을 注視해야 한다. 統一課業은 民族的 에너지의 總動員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内部矛盾을 排除하여 對內的 与件造成에 기여할 수 있도록 極히 原則的인 問題를 提起하여 보자.

(1) 信用社会의 實現

現代를 不信의 時代라고 할 때, 그 社会的背景에 앞서, 個人關係와 公共關係에서 發見되는 共通된 傾向은 秩序와 協力에 對한 破壞作用이라 할 수 있다.

政治人の 國民一般에 對한 不信, 國民들의 政治人에 對한 不信에 野合하여 不正腐敗와 空約, 政治的 無關心이라는 逆現象이 統出되어 왔다.

教練反對와 데모의 斷行, 崔루탄과 징계, 위수령과 休校等 反復되는 不連續線의 進行을 銳意注視해 왔다. 우리는 「스튜덴트파워」와 一般형사범의 要件을 연관시킬 수 없는 한편, 그것이, 칠저한 이념형태나 純粹한 總意의 表現이 아니라는 事實을 잘 알고 있다. CIA 기피를 비롯한 「口號의 비약」이나, 教授들에 대한 「自然人과 포스트」의 区分, 機關의 權位不正과 說得效果의 喪失에서 오는 規制節次의 物理的 要因動員은, 한동안, 規制法과 같은 惡法의 生産을 우려할 단계에 직면하게 하였다. 師弟間의 「斷絶」이란 社会的 不信狀態의 集約이라 할 것이다.

信賴받는 關係, 그 위에 總和가 이루어 질 수 있다.

不良食品의 양산, 교통지옥과 차량의 橫暴, 行政需要에 未及하는 行政, 財政力의 貧弱과 企劃專問家의 不在, 여기에 편승하여 不安으로부터의 自由마저 保障될 根拠가 희박하여 왔다.

그러나 政治는 「可能」의 作戰이며 「必要」의 哲學이다. 이 두개의 地點을 연결하는 直線의 길이위에 肯定과 信賴의 基礎를 닦아 보자.

(2) 農村과 都市의 隔差

國民總和와 團結意識에 對한 期待는, 社会的 構成要素間에 이루어지는 目的, 動機, 나아가서는 文化的 同一性위에서 可能的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零細化한 農村生活, 落後된 意識構造와 前近代的인 生産活動은 所得水準의 過當적인 低調와 함께 農民의 社会的封鎖를 助長하였고, 民族的 單一性を 損傷시키는 地域感情이나 内部構造의 異質化를 激化시켜 왔다.

그리하여 当局은 從來의 特定地域과 特定事業만을 集中的으로 開發해온 政策的 偏重을 止揚하고 나아가 農村地域의 人口調節, 勞動力의 都市集中을 防止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여, 副業, 電氣, 通信 등을 中心으로 하고 福祉政策과 投資 및 人力의 誘致에 尽力해야 할 것이다.

統一을 爲한 對內的의 條件造成은, 農村의 原始的유가와 農民의 意識水準의 問題를 解決하여, 就業人口를 誘致하고 開發을 積極 促進함으로써 都市와의 平衡을 찾는 努力으로부터 始作해야 할 것이다.

(3) 世界間的의 斷絶

保守와 改革, 既成과 新進 또는 老壯과 靑少年間的의 世代感覺을 中心으로, 그 精神文化的 背景, 科學的知識 價值觀 및 行動樣式 (behavior pattern)의 隔差를 注視하고, 目標에 對한 認識, 積極的인 動機形成과 相互間的의 窮極的인 調和 乃至 有機性을 찾으려고 할 때, 누구나 世代間的의 斷絶을 切實히 意識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戰爭의 經驗有無가, 社会的인슈를 둘러싸고 世代間的 현저한 意見差를 露出시킬 때, 政策의 形成, 制度의 스타일, 執行技術의 選擇에 있어 混亂과 衝突 (conflict) 을 야기하게 된다. 日本의 新旧世代는 核開發과 國防인슈를 둘러싸고 새로운 憲政秩序를 찾고 있으며 世界各國의 「스튜덴트·파워」는 国内要因을 充分히 刺戟할 程度로 거센 물결을 이르게 왔다.

統一論議도, 既存政策에 權威를 느껴 새로운 通路의 開發에 대해 懷疑的인 態度를 取하며, 現狀維持에 급속하는 既成世代에 反해, 現狀의 打開를 爲한 모든 可能한 方法中에서 優劣을 가려 實踐하려고 하며 積極的인 態度로 對話나 詰問의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 新進世代이다.

相互不信 또는 斷絶의 關係로부터 慎重하게 벗어나 共同目標를 向해, 接近하고 團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태」에는, 能力持續을 爲한 情報 및 動機의 새로운 提供이 그리고 「未熟」에는 判斷의 資料와 參與의 機會 및 發展性向을 提供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政策化된 方法」과 「方法의 政策化」間에는 많은 時差가 介在하고 있다.

共產體制와 自由體制間의 不可解한 制度的 差異를 超越하는 共通點의 發見은, 民族의 固有性을 維持할 수 있는 文化的 統一의 길에

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広意로 解釈하면, 南北間의 世代가 가진 思考方式의 갈등이 곧 「斷絶」의 問題이다. 思想의 장벽에 막혀 自由의 原理를 멀리 해은 그들에게 通信手段을 利用한 韓國의 소개와 宣傳이 要求되고 情報能力을 開發하여 韓國青年들에게 北韓의 實態를 알려줘야 할 것이다.

다. 文化 面

民族的 同質性 維持의 要請이 統一政策의 主要問題點으로 理解되고 있는 것은, 分斷狀態의 持續이 民族文化의 異質化를 促進해왔고, 그것이 統一課業의 障礙要素로 充分히 認識되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間 對話의 길을 開拓하기 爲한 實質的인 「어푸로치」의 重要性은 現段階에 있어 널리 認定되고 있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政治的 分界를 超越하는 民族感情이나 文化的 固有性이 相互間에 미치는 힘은 곧 問題를 解決하는데 많은 便利를 가져다 줄 것이다.

健全한 藝術的風潮, 學問研究의 方向과 文學, 體育의 振興에서부터, 都市構造와 觀光旅行 및 衣食樣相에 이르기까지, 健全한 民族的 獨創性과 美風良俗을 維持發展시키고, 病疾的인 外來思潮와 頹廢風潮를 除去시켜야 할 것이다.

于先 그 包括的인 主要項目을 指摘하여 보자.

(1) 이데오로기의 「갭」問題

共產主義社會의 歸屬感이, 民主主義社會에 對한 嫌惡와 反目으로 一貫되고, 또 自由社會의 歸屬感이 共產主義에 對한 敵對와 攻擊으로 一貫된 나머지, 現實과 思考와의 사이에 深刻한 「갭」이 存在하게 된다.

狀況判斷의 正確性을 妨害하는 이러한 「갭」을 除去하기 爲하여 民主主義와 安保理論의 開發이 要求되고 있다.

특히 自由圈內의 勢力依存關係가 統一方法의 依他的 傾向을 굳혀주고, 北傀의 赤化陰謀가 根本的으로 中·蘇의 軍事支援에 依存함으

로써 外勢介入의 契機를 크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自律, 自制的인 行動方式을 抑壓해 왔다. 韓民族은 原則上 外部勢力에 依한 統一方式을 排除하고, 自力에 依한 自律統韓의 方法을 選擇해야 한다. 이것은 政策基調로서 뿐만 아니라, 民族思想의 理念形態로 確立시켜야 할 것이다.

(2) 言語障壁

分斷과 對峙의 繼續은, 言語文化의 變質을 招來하고 있다. 그것은 他方에서 用例가 많은 말의 公式的 忌避와 類似語의 造作으로부터, 지나친 外來語와 混用은 勿論 文教政策 方向의 差異에 따라 顯著해지고 있다.

最近의 南北 赤十字會談에서도 北韓代表의 造作言語가 意思傳達에 混線을 일으켰다고 한다. 「소가 다 웃는다」를 「소웃자(牛)가 꾸레기 던진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人民」이나 「동무」라는 말의 忌避現象이나 「相互」「곽밥(도시락)」 「行票(수표)」와 같은 造作用語에 익숙해짐으로서 言語生活의 隔差가 커지고 文法과 文學的 思潮에 있어 漢英混用, 또는 革命目的의 藝術動員과 愛情, 「리얼리티」「해학」或은 浪漫主義와의 漸次的인 分化가 終局的으로 無形의 障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學者間의 政治性을 떠난 討論, 심포지엄과 같은 會合을 通하여 學問, 藝術의 共同開拓을 企圖할만 하다.

(3) 非政治的 接近通路의 擴大

政治的 性格이 排除된 學術의 交流는 統一에의 接近過程에서 一種의 바람직한 길로 생각된다.

· 學術會議과 세미나의 開催는 國內外 輿論造成에 큰 效果를 波及 시켜줄 것이다. 赤十字會議는 그런 意味에서 方向을 열어 주었으나 그것이 唯一한 通路가 아니라는 事實을 迅速히 確證하여야 할 것이다.

戰略적으로 安保에 障礙要因을 던져주지 않고, 兩方에 利益이 同時에 期待되는 接近通路는 文化使節, 學問交流, 自然科學, 社會科學의 研究資料 交換 其他 非政治的 接觸의 길을 통해 열려질 수 있을 것이다. 定期 또는 非定期 藝術祭의 開催와 言語, 其他의 學術「심포지엄」開催는 統一의 展望을 아주 밝게해 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適應하기 爲하여 共產圈 研究의 門戶를 段階적으로 開放하기 爲한 政策이 考慮되고 있는 것은, 晩時之歎의 感도 있지만 千萬多幸한 일이다.

政府는 이를 爲해 非政治的인 赤國書籍의 市販도 許容할 方針을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共產圈研究가 活潑해질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政治的 次元에서의 統韓政策이, 民族主義的 段階에서의 接近을 爲한 迂回路와 連結되도록 于先 學問, 藝術의 交流政策을 試圖해볼 段階에 들어섰다.

韓國이 北傀에 對해 開放적이고 多元的인 社會로 繁榮하고 있는 한편, 相互努力의 原理를 追求하는 有利한 位置를 確保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를 統一目標의 戰略的인 발판으로 끌어 올리기 爲해서는,

- ① 海外居住 韓國民들이 北傀의 洗腦教育을 받은 海外宣傳

要員으로부터 保護받을 수 있는 弘報 및 教育政策 또는 北傀를 凌駕하는 弘報要員의 養成이 必要하며,

② 맑스·레닌主義와 北傀의 共產主義的 實態에 對한 理解와 分析이 따라야 하고,

③ 傀偏와의 政治的 心理的 競争에서 充分히 優位를 維持할 수 있는, 보다 技術的이고 洗鍊된 方法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從來의 反共教育, 無批判 또는 注入式 方法에 치우쳐, 共產主義는 無條件 나쁘다고 해놓고, 이를 뒷바침하는 理論的 基盤이 貧弱했던 것은 事實이었다. 이러한 方式은 止揚되어야 한다.

民主主義의 哲學에 基礎한 健全한 民主市民의 養成을 위한 教育政策이 優先되고, 그 위에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理論을 比較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賦與해야 한다.

否定的인 傾向에 偏重했던 反共教育을 지금 体系的인 綜合教育으로 改編 實施할 때가 왔다. 예를 들면 北韓同胞가 모두 共產黨이라든지 38線을 國境線으로 錯覺하는 兒童들에게 國土兩斷의 原因을 正確히 가르치는 한편, 民主主義의 優越性과 韓國의 將來에 對한 肯定的인 信念을 키워 주어야 한다.

統一教育은 年層을 區別하고 또 方法上 情誼教育과 認知教育이 並行되어야 한다. 學校教育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幅넓은 社會教育과 同時에 實施되어야 한다.

(4) 第三國人에 對한 觀光許容

政府當局이나 民間 研究團體들이 지금까지 講究해온 方法은 어떠한 形態로든 南北韓의 排他的인 態度를 前提한 것이 大部分

이였기 때문에 實現性이 稀薄했었다.

그러나 하나의 代案으로 第三国の 純粹民間人에 依한, 南北韓의 同時訪問 또는 同時 觀光은 한번쯤 考慮해 볼만 한것으로 보인다.

韓國이나 北傀의 비자만 가지고 南北韓을 同時에 訪問할 수 있게 되면 第三国人의 韓國에 對한 「이미지메이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技術的인 節次問題가 提起될 것이겠지만, 于先은 韓國의 慶州, 濟州島 北은 金剛山 程度로 觀光地域을 局限시켜 實施하되 狀況에 따라 그 振幅을 變化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保安問題에 關한 統制能力 如何에 따라서는 期待値가 있으며, 最近 政府當局이 東西緊張緩化에 따른 非敵性國家의 商用入國(유고의 境遇)을 許容하고, 이란蹴球팀의 蘇聯人코치에게 入國을 許容한 大胆한 措施는 그 可能性을 보여준 것으로 所望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5) 非戰略物資의 交換可能性

第三国人의 觀光許容問題가 외각적인 方法으로 試圖될 수 있다면 南北間 非戰略物資의 交換은 雙務的인 方法의 摸索이라 할 수 있다.

特産物, 이를테면 金, 寒天, 人蔘 等の 交換이 考慮될 수가 있다. 敵對關係의 強化가 人的交流의 實現性을 稀薄하게 하는限 實驗的인 段階를 거쳐 이와 같은 物資의 交換이 合意될 수 있다.

東西獨이 通商(制限된 範圍의)을 實行하고 있는 것은, 勿論 條件上의 差異가 있지만 같은 分斷國의 立場을 지키고 있는 韓半島를 爲해서는 他山之石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政策 予備事項으로 中共과의 交易을 設定할 수 있다. 北傀와 日本의 接觸例에 比較하여 中共과의 交易은 長期的인 視野에서 볼때 亦是 언젠가는 考慮될 것이다. 于先은 香港에 있는 中共의 「차이너

리소시스]회사나 「차이너뱅크」를 통한 交易이 생각될 수 있다.

이와같은 考慮事項이 國家非常事態下의 韓國에서 當場 政策內容으로 樹立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統一論議가 事實上 「타부」視 되어온 社會的인 逆理를 打開하고 果敢히 實踐可能한 通路를 開拓하기 위하여 「競争속의 妥協」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6) 反共教育의 改編

反共教育의 目標가 共產主義에 對抗하여 鬪爭하는 民主主義의 勝利와 統一達成에 있다는데 疑問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從來의 教育方式, 體制, 行政面이 가졌던 不合理한 要素에 對하여 많은 批判과 反省이 促求되고 있다.

反共의 基盤이 튼튼한 國民精神 위에서 國家의 安保를 維持하고 共產主義의 挑発을 防止하기 위한 政策的, 教育的 努力의 展開過程임에도 不拘하고 只今까지 그것은 感情的인 側面에 치우쳐 왔다. 지나치게 情意的이었던 反共教育을 止揚하고 理性的인 勝共教育體制로 改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贊成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 初, 中, 高校의 反共教課를 改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 改編될 反共教育의 內容은 民族單位의 巨視的인 立場에서 統一을 前提해야 하고, 分斷 25年의 歷史的 沈滯와 南北社會의 隔差를 考慮한 對話探索의 基礎를 包含한 אל찬 것이어야 할 것이다.

政府가 共產圈研究의 制限을 大幅 緩和시키겠다는 方針을 밝힌 것은 反共教育의 改編과 發軔하여 時宜에 適合한 措置를 取한 것으로 보인다.

反共教育은 이제 勝共教育, 統一教育으로 되어야 한다. 時時刻刻으로 變遷하는 周辺情勢에 對備할 수 있는 內容이어야 하고 南北間의 理念論爭에서 充分히 이길 수 있는 精神教育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한편 海外僑胞에 對한 反共教育의 重要性이 疎外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北傀의 平和攻勢, 게릴라戰의 輸出 및 海外宣傳要員의 浸透에 對해 보다 積極的이고도 開放的인 對策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新聞 其他 매스콤活動이 統一課業 遂行을 爲해 實로 決定的인 役割을 担当해야 할 것이므로 國內媒介體는 勿論, 海外通信能力의 活用과 貢獻을 期待할 수 있는 方策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7) 스포츠의 交流

앞에서 言及한 學問 其他의 交流政策에 있어 좀더 獨特한 問題로 考慮될 수 있는 것이 이 스포츠交流問題이다.

서울-平壤 間의 往來競技는 어려워도 國家呼稱問題를 떠나 世界競技나 亞細亞競技에 共同戰線을 形成하여 參加하거나 不定期게임을 開催할 수 있다.

例컨대 蹴球는 兩方이 즐거하는 경기이다. 直接的인 스포츠交流는 아니었지만 스포츠를 通해 分斷의 悲恨을 되새겼던 辛金丹父女, 韓 鎔화 事件을 記憶해 볼 때 스포츠交流가 가진 意味를 充分히 理解하면서도 그 實現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全世界를 通한 勢力間의 冷戰樣相에 不斷히 變化가 招來되고 그 緩和의 氣運이 循環되고 있는 것은 마라톤 蹴球 等の 競技開催를 위한 條件形成의 可能性을 暗示하고 있다.

東西獨이 올림픽大會에 同一한 게르만民族으로 出戰한 事實은 實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 南北赤十字會談의 問題點

南北協商의 序曲이라 할 수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은 8.15 宣言에 이어 韓國政府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統一政策的 意識을 內包하고 있다.

그동안 南北은 板門店停戰會談, 54年 平和統一을 爲한 國際會議인 「제네브」會議 그리고 南北韓 올림픽 單一팀 構成을 위한 63年 「쉬스」의 「로잔느」會談과 同年 5月과 7月 兩次에 結친 僞會談을 통해 對話의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韓國側이 主導하고 國民間의 現實問題로서 家族을 찾기 위한 會談은 이번이 처음이다.

特定の 形態들이 모두 決裂로 終止되고 만 會談이었으나 南北赤十字會談은 本格的으로 會談의 性格을 띤 民族自律의 會合이라 할 것이다.

會談의 始作에 意義가 있는 것이지만 이 會談이 失敗하는 境遇 南北間의 不信과 對立은 더욱 深刻해 질것을 생각할 때 代表들의 慎重한 態度가 促求되고 있다.

그리고 對話가 通했다고 해서 性急한 統一論議를 固執하여 政策의 履行過程에서 差跌을 가져와서도 안될 것이다.

反面, 南北協商의 보다 窮極的인 目標에 到達하기 위한 序章이라고 봐서 多樣한 通路의 餘地를 開發할 수 있도록 積極的인 態度로 臨해야 할 것인즉, 範圍와 方法上 너무 制限을 加함으로써 協商의 길을 좁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平壤의 訪問會談이 南韓代表의 積極的인 提議였음에 비해 對象을 家族에만

局限시키겠다는 方針은 極히 消極的인 態度의 所産이라 하겠다.
非政治會談으로서의 性格을 充分히 考慮하고 예양과 理解, 寬容과 美
德으로 對面하여 歷史的인 任務遂行에 万全을 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結 論

統一은 멀고도 긴歷程이다. 「分斷의 長期化」를 막고 또 「戰亂」을 避할 수 있는 길은, 對內的 條件造成에 忠實하는 길이다. 「融合」의 概念이 統一政策의 基礎가 되어야 하며, 教育政策이 安保와 民主主義的 訓練을 基調로 하고 戰略的으로 妥當한 方法과 果敢한 採用과 實踐이 期待되고 있다.

異質化된 南北社會의 文化的 固有性을 保護하고 獨逸의 「東方政策」에 比喩되는 이른바 「北方政策」을 追求해야 하며 相互接近의 通路를 開發해야 한다.

內部矛盾의 克服과 統一政策의 方向을 探索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觀察해 왔으나, 이 글의 論題에 좀더 忠實하기 爲하여 安保教育의 具體的인 研究와 科學技術 및 軍事政策에 關한 檢討가 必要할 것으로 理解된다.

특히 政策的側面을 中心으로 論議하였으므로 執行技術的 側面이 疎外되었으나 以上과 같은 主要論點에 立脚하여 우리는 韓國社會의 發展, 平和 및 統一目的에 到達할 수 있는 積極的인 態度를 堅持해야 할 것이다.

統一은 政治的 安定, 經濟的 優越과 함께 훌륭한 政策의 基盤위에서 國民各自가 能力을 培養하고 民主社會에 힘껏 貢獻하게 될때 當然히 成就되는 肯定的 課題인 것이다. 여기에 意志的側面이 強調되는 所以가 있다.